

찬란한 옥좌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석좌같이 달리고 달려
명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부산시민들, '최동원 기념 야구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오거돈 회장, "적극 동참하겠다" 추진위에 뜻 전해

부산시는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 나서

'최동원 기념 야구박물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부산에서 결성됐다.

지난 10월 4일 첫 준비모임을 갖고 출범한 이 추진위원회는 부산이 낳은 '불세출의 투수' 故 최동원 선수를 기리고 구도(球都) 부산에 걸맞은 야구 박물관을 짓기 위해 시민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권기우 변호사, 서세욱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장준동 부산변협회장 등이 공동 대표로 참여했다.

이에 오거돈 본부동창회 회장은 "최동원 기념 야구박물관 건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추진위 측에 전달하고 본부동창회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10월 16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최동원기념 야구박물관 건립과 '야구 명예의 전당' 부산 유치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부산시는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 신청서를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부지로 사직야구장 인근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까지 지어주겠다는 입장을 KBO 측에 전달했다. 또 장기적으로 사직야구장과 명예의 전당 주변 일대에 'BALL PARK(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모교 교문에 양승태 동문(20회)의 대법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양승태 동문(20회), 대법원장에 공식 취임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KBS TV에 출연하기도

양승태 동문(20회)이 지난 9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0월 9일 KBS TV의 일요진단에 출연,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포부등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대법원장이 방송매체에 직접 출연한 것은 양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정동식 본부동창회 고문(1회) 별세

정동식 동문(1회, 본부동창회 고문, 재경동창회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지난 10월 25일 새벽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별세했다. 85세.

유족으로는 장남 정대립 세종대 국문과 교수, 차남 정대균 동문(26회, 장수SNP 사장), 3남 정대일 동아대 화학과 교수, 막내 딸 정대련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가 있다. 발인은 10월 27일 오전 6시에 있었고 장

지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이었다. 고인은 군 북부 시 총무 무공훈장을 받은 예비 해병중령출신이며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것이다.

<9면에 관련기사>



故 정동식 동문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동문 잠들다

경남고가 배출한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동문(31회)이 지난 9월 14일 새벽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53세.

고인은 2007년 대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한때 병세가 호전됐다가 지난해부터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요양해오다 최근 일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16일 오전 발인해 경기도 자유로 청아공원에서 영면했다. 유족은 부인 신현주 씨와 군 북부 중인 아들 기호 씨가 있다.

<관련기사 10면>

제13회 회장기쟁탈 골프대회 12월 5일 개최

11월 14일까지 200명 선착순 신청 마감

동창회장기 쟁탈 제13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2월 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200명의 용마골퍼들이 참가하게 되는 이 골프대회는 △기별대항 단체전(선수조, 스트로크 방식) △단체조 개인전(GROSS 계

산) △개인전(친선조, 뉴페리어 방식)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으로 나누어 겨루게 된다.

참가 신청마감은 11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200명만 신청을 받는다.

<2면에 참가신청 안내>

정부, '이태석 상' 제정하기로

정부가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이태석 신부(35회)를 기리는 '이태석 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9월 29일자에서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이 신부의 숭고한 뜻을 기

리고 아프리카 같은 빈국의 오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애쓰는 분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태석 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요기사 안내

- * 동창회에 큰 공 세우고 간 '말형' 정동식 동문 - 9면
- * 아, 최동원 동문, 당신은 진정한 영웅 - 10면
- * 행려병자 시신 염 해주는 박홍이 동문의 아름다운 삶 - 13면
- * 가난 딛고 일어설 힘 준 '과거'를 가진 선생님 - 14면
- * 경고합창반 '부산폴씨'에서 '전국우승'하기까지 - 15면
- * 대안학교 교장으로 '제2인생' 시작한 조경래 동문 - 16면

장년부에서 28회, 청년부에서 44회 우승 제 43회 기별야구대회 대단원 막 내려

제 43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2011본부) 결과

*본 내보재

A) 연합팀 (5회전, 1회~18회 구성)



B) 단일팀 (전 게임 7회전, 19회~50회 구성)



제 43회 동창회장기쟁탈 개별야구대회(주최 본부동창회, 주관 경야회)가 지난 10월 30일 결승전에서 장년부에서 28회 팀이, 청년부에서 44회 팀이 각각 우승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9일 개막식을 가진 뒤 연 4주간에 걸쳐 토, 일요일 마다 모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9개 팀이 출전, 매 경기마다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대진표 참조>

장년부 결승전에서 28회 팀은 32회 팀과 맞서 21대 7라는 큰 점수 차이로 이겼다.

청년부에서는 44회 팀이 43회 팀과 만나 접전을 벌인 끝에 9대 8로 신승했다.

한편 개막식 날인 지난 10월 9일 있었던 연합팀 경기에서는 B팀(14회 주축)이 A팀(17회 주축)을 18대 2로 꺾고 우승했다.

개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장년부 △최우수선수상 조광제(28회) △최우수투수상 김준연(28회) △감투상 김이청(28회) 김종성(32회) △미기상 김부윤(28회) 김창범(32회) △인기상 김기섭(28회) 김부윤 동문의 아들 △수훈상 김태영(28회) △감투상 권수원(28회) △타격상 1위 조광제(28회) 6할6푼7리/ 2위 황영복(33회) 5할8푼3리/ 3위 김부윤(28회) 5할

◇ 청년부 △최우수선수상 하태욱(44회) △최우수투수상 제정완(44회) △감투상 석상봉(44회) 김대만(43회) △미기상 이현(44회) 이학노(43회) △인기상 배종세(44회) △수훈상 정종윤(44회) △감투상 권상근(44회) △타격상 1위 김현석(44회) 7할6푼9리/ 2위 안병규(44회) 5할6푼2리/ 3위 마성준(43회) 5할

동창회장기쟁탈 제13회 용마골프대회 참가 안내

- ◇ 일시, 장소 = 2011. 12. 5. (월) 오전 10시 30분 부산C.C
- 오전 10시 30분, 18개 전 홀에서 동시 Tee Off (샷건방식)
※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등록(접수), 시타식 10시 15분
- ◇ 참가인원 : 각 기별, 지역 제한 없이 200명 (50개조) 선착순
- ◇ 참가신청 : 본부 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 FAX 051-245-7550
- ◇ 신청마감 : 2011. 11. 14 (월) 오후 5시까지
- ◇ 참가회비
- 각 기별 단체전 참가비 : 100,000원
- 개인 참가비 : 40,000원
※ 입금구좌 : 부산은행 028-01-034989-3 경남중고동창회
<송금 시 의뢰인의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피(카트비 포함 비회원 169,000원, 가족회원 그린피는 65,000원)와 캐디피(조당 100,000원)은 각자 또는 조별 부담
- ◇ 대회구분
- 기별대항 단체전 (선수조·스트로크 방식) = 우승·준우승·3위
※ 기별 참석 동기생 중 BEST SCORE 3명 합산하여 순위 결정
- 단체조 개인전(GROSS 계산) = 우승·준우승·3위
- 개인전(친선조·뉴페리어 방식) =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3위
통기스트·니어 핀·행운상
A조 : 1~25회
B조 : 26회 이후
-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동문 부인들만 여성부에 해당됨)
=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
- ◇ 시상
- 참가상 = 참가동문 및 가족 전원 (기념품 및 유재진 동문 협찬 벤츠 바람막이)
- 각 부문별 우승 준우승 3위자에게 시상 기, 트로피 증정
- 출신원상 (벤츠 승용차), 이글상 특별 시상
- 입상자 전원에게 부상 시상
- ◇ 행운권 추첨 = 80명 이상 입상 예정(당일 시상 및 단합회식 때 행운상품 추첨)
- ◆ 문의 및 연락 = 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 또는 010-5555-0879

정영석 동문(24회), 부산 동구청장에 당선

지난 10·26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한 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영석 동문(24회)이 민주당 이해성 후보를 15%포인트의 큰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정 동문은 전체 투표자 3만4천135명(39.5%) 가운데 1만7천357표(51.08%)를 얻었고 민주당 이 후보는 1만2천435표

(36.59%)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는 박근혜 한 나라당 전 대표가 부산까지 내려와 정 동문을 적극 지원했고 문재인 동문(25회,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이해성 후보를 총력지원, 맞대결 양상을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재경 용마골프대회에서 22회, 28회 단체우승

재경동창회(회장 임우근)가 주최한 제9회 용마골프대회가 지난 9월 22일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열렸다.

총 222명의 용마골퍼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22회와 28회가 각각 A조(14~21

회), B조(25~47회)에서 영예의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A조에서 김공립 동문(22회)이, B조에서는 박윤섭 동문(35회)이 각각 우승했다.

본부 덕형포럼, 한형조 교수 초청특강

11월 15일 롯데호텔 42층 아스토룸에서

본부 덕형포럼(회장 정량부)의 제9회 특강이 11월 15일 오전 7시 부산 서면 롯데호텔 42층 아스토룸에서 열린다.

초청강사는 한국학의 독창적인 진로를 모색해온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며 연제는 <유교, 그 '마음'의 학문을 듣는다>

다. 한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한국학부에서 고전한국학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언론인과 공무원 동문 초청모임

부산 우리들의 만남 주최

부산 '우리들의 만남'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 부산 민락동소재 「수정횃집」(27회 김경진 동문 경영)에서 부산·울산·경남 용마언론인클럽 회원들과 부산시 동문 공무원 친목 모임인 용마회 회원들을 초청,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종철 남구청장, 오거돈 동창회장, 허범도 우리들의 만남(부산) 회장,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회보 구독료를 아직 내지 않은 동문님들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회보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우리들의 자랑스런 역사 - 경남중 역사자료실에 전시될 '추억의 자료들'

경남중 차동렬 교장 “옛날 자료 더 보내 주세요” 당부



▲경남중 1회 졸업기념사진 경남중 제1회 졸업생들의 졸업기념사진. 1회 동문들이 입학했을 때 교명이 '부산 제2중학'이었으나 졸업할 때는 '경남중'으로 바뀌었다. 65년 전인 1946년도(단기 4279년)에 촬영된 희귀 자료다. 허중수 동문(1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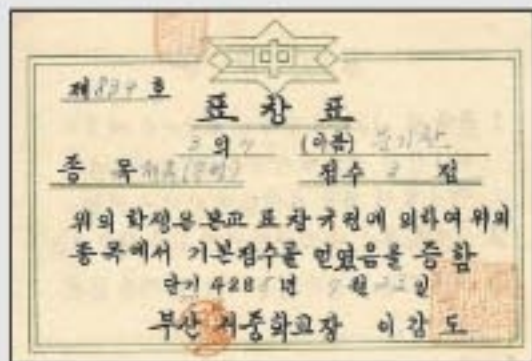
▲일본 군복 같은 교복을 입고... 경남중 1회 졸업생 정기선(왼쪽, 작고), 김낙운 동문(오른쪽). 당시 교복이 일본 군인복장 그대로였다. 교복 목깃에 '2'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2학년 때 찍은 사진이다. 허중수 동문(1회) 제공



▲월사금 냈나 안냈나 기록 월납금 영수증. 당시 '월사금'이라고도 불렀다. 월사금을 제 때 내지 못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일도 많았다. 박준성 동문(18회) 제공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학생증 '학생증'이라고 불렀던 신분증명서.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박준성 동문(18회) 제공



◀손으로 고쳐 적은 학교이름 수영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준 표창장. 경남중은 한 때 '부산 서중학교'로도 불리었다. 이 표창장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교명이 '부산 서중학교'에서 '경남중'으로 바뀌었을 때다. '부산 서중학교' 때 인쇄해두었던 표창장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교이름을 손으로 고쳐 적은 것이 눈길을 끈다. 문기찬 동문(13회) 제공



▲교장이름으로 준 부급장 임명장 부급장 임명장. 부급장을 임명하면서 학교장이름으로 임명장을 주었다. 최명진 동문(24회) 제공



▲'쌍백선'과 '별표 명찰'을 달고 우쭈 '쌍백선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가슴에 '별표 명찰'과 소매에 달린 '쌍백선'은 명문중학교의 표상이었다. 박준성 동문(18회) 제공



◀자랑스레 붙이고 다녔던 모표 경남중 교모에 붙였던 모표. 우리들의 자랑이었다. 박준성 동문(18회) 제공



◀부상으로 받은 금메달 3년 개근상장과 함께 받은 금메달이다. 박준성 동문(18회) 제공

경남중 차 교장, “역사자료실 연말쯤 개관” 사진 등 36점 접수돼... 자료 더 필요해

모교 경남중학교가 '역사자료실'에 전시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본 회보 제385호 2면)를 본 동문들이 사진, 졸업장, 상장, 교모 모표 등 '추억의 옛 물건들'을 경남중에 보내오고 있다.



차동렬 교장

지금까지 접수된 각종 자료들은 허중수 동문(1회) 등 4명의 동문이 기증한 사진 등 36점에 불과하나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전망이다.

차동렬 교장(24회)에 따르면 박준성 동문(18회)은 울산에서 학교까지 일부러 찾아와 경남중 재학 당시의 교복명찰, 모표, 성적증명서 등을 접수했고 문기찬 동문(13회) 등도 학교 찾아와 옛 물건들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차 교장은 “교사 재건축공사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 경 교장실 앞쪽에 교실 한칸 크기의 공간을 마련해 '역사자료실'을 개관할 예정”이라며 “아직 전시공간을 채울 만큼 자료가 모아지지 않았다. 자료 발굴에 동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중수 동문(1회)의 증언

‘부산 제2중학’으로 입학해 ‘경남중’으로 졸업 해방되면서 토성동에 있던 일본여자중학교 교사 차지

“나는 2차대전이 일어난 다음해 '부산 제2중학'에 입학했다. 입학했을 때 교사(校舍)는 서대신동의 옛 부산여고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2학년 땀가 3학년 때 학교를 대연동 뒷골짜기에 있었던 일본군 제5연대 자리로 옮기기로 하고 그곳에 새로 교사를 짓기 시작했다. 학교건물이 거의 완공돼 우리들이 책걸상 등을 옮기던 중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자 신축 중이던 교사로 가지 않고 토성동에 있었던 일본여자중학교 교사를 차지해 학교를 그곳으로 옮기고 학교 이름도 '경남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1회 졸업생들은 입학은 '부산 제2중학교'로 했다가 졸업은 '경남중'에서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이름만 바뀌었을 뿐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대로였으니 그게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산 제2중학은 일본인학생과 한국학생이 함께

섞여 다녔다. 전쟁 중이어서 교복이 일본 군인복장 그대로였다. 각반까지 차고 다녀야 했다. 교련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씩 받아야 했는데 군사교육 그대로 이론과 실기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 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다. 일본 군인복장의 교복을 입고 죽도(竹刀)를 들고 찍은 사진의 인물은 동기인 정기선(작고)과 김낙운이다. 교복 깃에 '2'라는 숫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2학년 때 찍은 사진이다. 나도 이때 독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언젠가 찢어 없애 버렸다. 두 동기생의 사진이 어떤 연유로 내 손에 남아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1회 졸업생들의 단체사진의 배경은 지금의 경남중 자리에 있던 일본여자중학교의 교사(校舍)다.”

모교 발전기금 접수 현황

본부 접수분 8억4천만원 넘어섰다

김대욱 (29회 · TM마린(주) 대표이사) 3,000만원

이순환 (33회 · (주)한국메탈 사장) 1,000만원



김대욱 (29회)

이학수 (30회 ·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350만원, 누계 700만원

장흥의 (19회 · 삼화어구사 대표) 500만원

김우홍 (22회 · (주)경남프뢰벨 대표이사) 300만원

장평우 (31회 · 청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00만원

이종명 (38회 · 동아탱커(주) 대표이사) 300만원

노영배 (23회 · 바른눈안과 원장) 200만원

이문희 (23회 · 프라우메디병원 이사장) 200만원

김 형 (26회 · 보광약국 대표) 100만원, 누계 200만원

이진호 (34회 · 동광SI(주) 대표이사) 200만원

입금
계좌
안내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흠

본부동창회 접수 분 - 누계 <2011년 10월 25일 현재>

△ 故김근준(1회) 100만원	△ 신대수(10회) 20만원	△ 윤성희(12회) 12만원
△ 김희철(3회) 30만원	△ 오강욱(10회) 200만원	△ 이수영(12회) 10만원
△ 송두호(3회) 1000만원	△ 이봉원(10회) 10만원	△ 이승훈(12회) 10만원
△ 김주호(4회) 20만원	△ 이연희(10회) 20만원	△ 이용언(12회) 50만원
△ 박석만(4회) 20만원	△ 임호웅(10회) 20만원	△ 이원우(12회) 100만원
△ 박흥기(4회) 30만원	△ 전영대(10회) 20만원	△ 정대식(12회) 10만원
△ 양종학(4회) 300만원	△ 정승석(10회) 50만원	△ 최병준(12회) 10만원
△ 장수호(4회) 100만원	△ 조양제(10회) 1000만원	△ 최병훈(12회) 10만원
△ 정순모(4회) 200만원	△ 허영오(10회) 200만원	△ 최신일(12회) 20만원
△ 나오연(6회) 100만원	△ 공상기(11회) 100만원	△ 탁해정(12회) 10만원
△ 이재형(6회) 10만원	△ 김재곤(11회) 30만원	△ 하일민(12회) 30만원
△ 오영은(6회) 200만원	△ 백연규(11회) 30만원	△ 한준배(12회) 10만원
△ 이길상(6회) 30만원	△ 심재룡(11회) 20만원	△ 김정성(13회) 30만원
△ 이희문(6회) 30만원	△ 강수현(12회) 200만원	△ 문기찬(13회) 3만원
△ 임경택(6회) 10만원	△ 강창수(12회) 30만원	△ 정철기(13회) 30만원
△ 장재수(6회) 20만원	△ 구봉근(12회) 30만원	△ 김경일(15회) 1000만원
△ 장건용(6회) 10만원	△ 김부생(12회) 30만원	△ 서정욱(15회) 10만원
△ 정상철(6회) 30만원	△ 김상희(12회) 10만원	△ 손부흥(15회) 500만원
△ 정세동(6회) 20만원	△ 김선일(12회) 30만원	△ 강종국(16회) 10만원
△ 최상해(6회) 10만원	△ 김성찬(12회) 50만원	△ 강진중(16회) 10만원
△ 허택(6회) 30만원	△ 김수원(12회) 10만원	△ 여성국(16회) 10만원
△ 故공상태(8회) 100만원	△ 김용호(12회) 10만원	△ 강주수(17회) 10만원
△ 구본섭(8회 · 김해지역 동창회) 100만원	△ 김우성(12회) 10만원	△ 권경술(17회) 100만원
△ 김병길(8회) 500만원	△ 김중수(12회) 50만원	△ 김길호(17회) 100만원
△ 박동열(8회) 1000만원	△ 김중원(12회) 10만원	△ 김동수(17회) 500만원
△ 윤상현(8회) 10만원	△ 김종일(12회) 10만원	△ 김동조(17회) 10만원
△ 이윤조(8회) 100만원	△ 김진갑(12회) 20만원	△ 김두백(17회) 10만원
△ 장혁표(8회) 100만원	△ 김철기(12회) 100만원	△ 김부부(17회) 100만원
△ 김영국(9회) 10만원	△ 김춘광(12회) 10만원	△ 김백수(17회) 300만원
△ 김태영(9회) 10만원	△ 김효구(12회) 10만원	△ 김병문(17회) 30만원
△ 박담희(9회) 20만원	△ 남기용(12회) 1000만원	△ 김상천(17회) 100만원
△ 성백규(9회) 10만원	△ 박영운(12회) 10만원	△ 김성탁(17회) 10만원
△ 이대규(9회) 100만원	△ 박용운(12회) 10만원	△ 김성오(17회) 50만원
△ 한동대(9회) 50만원	△ 박종정(12회) 100만원	△ 김승현(17회) 100만원
△ 황영선(9회) 20만원	△ 안상직(12회) 30만원	△ 김용구(17회) 100만원
△ 김상국(10회) 20만원	△ 안영규(12회) 20만원	△ 김조일(17회) 10만원
△ 김선동(10회) 20만원	△ 엄태섭(12회) 30만원	△ 김준언(17회) 100만원
△ 김성규(10회) 50만원	△ 오세정(12회) 20만원	△ 김준위(17회) 100만원
△ 박재경(10회) 10만원	△ 옥계환(12회) 100만원	△ 김지창(17회) 30만원
△ 박종문(10회) 20만원	△ 왕한규(12회) 100만원	△ 김창운(17회) 300만원
		△ 김태호(17회) 20만원

△ 김효남(17회) 10만원	△ 정규식(20회) 300만원	△ 김석윤(29회) 30만원
△ 문석웅(17회) 50만원	△ 정용환(20회) 300만원	△ 김영기(29회) 10만원
△ 박가식(17회) 100만원	△ 차상근(20회) 200만원	△ 김인술(29회) 100만원
△ 박신도(17회) 200만원	△ 채경석(20회) 200만원	△ 박동일(29회) 50만원
△ 박영두(17회) 20만원	△ 최장하(20회) 300만원	△ 박성필(29회) 200만원
△ 박영일(17회) 10만원	△ 한기완(20회) 100만원	△ 송희태(29회) 50만원
△ 박인사(17회) 100만원	△ 허규판(20회) 1000만원	△ 양승오(29회) 80만원
△ 박재구(17회) 20만원	△ 허남균(20회) 300만원	△ 윤형근(29회) 50만원
△ 박종구(17회) 100만원	△ 21회 동기회 4710만원	△ 이경호(29회) 100만원
△ 박정홍(17회) 100만원	△ 김우홍(22회) 300만원	△ 이석조(29회) 500만원
△ 백철균(17회) 10만원	△ 민훈기(22회) 10만원	△ 임광열(29회) 100만원
△ 서재홍(17회) 20만원	△ 이등열(22회) 100만원	△ 장만(29회) 100만원
△ 서정승(17회) 200만원	△ 장성복(22회) 1000만원	△ 정김(29회) 100만원
△ 손성근(17회) 200만원	△ 김동욱(23회) 200만원	△ 정성훈(29회) 100만원
△ 송유근(17회) 30만원	△ 김동욱(23회) 50만원	△ 강석철(30회) 30만원
△ 송인문(17회) 100만원	△ 김상영(23회) 50만원	△ 권영인(30회) 30만원
△ 신정아(17회) 10만원	△ 김영기(23회) 200만원	△ 권용택(30회) 50만원
△ 신종(17회) 30만원	△ 김용기(23회) 20만원	△ 구윤석(30회) 10만원
△ 안정의(17회) 30만원	△ 김정복(23회) 20만원	△ 김기업(30회) 50만원
△ 오태식(17회) 100만원	△ 김중광(23회) 100만원	△ 김백수(30회) 30만원
△ 우기남(17회) 50만원	△ 김태용(23회) 100만원	△ 김상직(30회) 10만원
△ 윤성욱(17회) 500만원	△ 노영배(23회) 200만원	△ 김성복(30회) 10만원
△ 윤수성(17회) 30만원	△ 박수갑(23회) 100만원	△ 김세일(30회) 30만원
△ 이건우(17회) 100만원	△ 서영수(23회) 100만원	△ 김승대(30회) 10만원
△ 이세복(17회) 1000만원	△ 손근식(23회) 100만원	△ 김옥성(30회) 10만원
△ 이수창(17회) 100만원	△ 송충송(23회) 50만원	△ 김재수(30회) 30만원
△ 이우기(17회) 10만원	△ 신상희(23회) 100만원	△ 김종진(30회) 30만원
△ 이일영(17회) 10만원	△ 안병윤(23회) 20만원	△ 김창근(30회) 30만원
△ 이정보(17회) 10만원	△ 안병화(23회) 20만원	△ 김해근(30회) 200만원
△ 이종길(17회) 10만원	△ 옥치범(23회) 200만원	△ 김현태(30회) 100만원
△ 이종혁(17회) 100만원	△ 원인건(23회) 200만원	△ 박동욱(30회) 50만원
△ 이형우(17회) 100만원	△ 육병현(23회) 20만원	△ 박원호(30회) 100만원
△ 장승구(17회) 200만원	△ 윤순현(23회) 200만원	△ 박재백(30회) 30만원
△ 장경명(17회) 100만원	△ 이등성(23회) 100만원	△ 박정태(30회) 30만원
△ 정량부(17회) 100만원	△ 이문희(23회) 200만원	△ 서강태(30회) 10만원
△ 정태일(17회) 100만원	△ 이병찬(23회) 300만원	△ 서민석(30회) 60만원
△ 정해표(17회) 10만원	△ 이상수(23회) 50만원	△ 서복현(30회) 100만원
△ 제양성(17회) 50만원	△ 이충호(23회) 100만원	△ 서재원(30회) 30만원
△ 조용운(17회) 30만원	△ 전영조(23회) 200만원	△ 서하수(30회) 100만원
△ 조증언(17회) 500만원	△ 전원익(23회) 30만원	△ 송영환(30회) 100만원
△ 천용광(17회) 10만원	△ 정상건(23회) 200만원	△ 송한식(30회) 30만원
△ 최만식(17회) 5000만원	△ 조현표(23회) 50만원	△ 신범주(30회) 30만원
△ 최성호(17회) 1000만원	△ 채행운(23회) 100만원	△ 신영주(30회) 30만원
△ 추봉실(17회) 10만원	△ 최인식(23회) 50만원	△ 신유원(30회) 30만원
△ 하영수(17회) 300만원	△ 하복진(23회) 20만원	△ 안종화(30회) 100만원
△ 허종언(17회) 30만원	△ 하영근(23회) 50만원	△ 오경태(30회) 10만원
△ 황중부(17회) 10만원	△ 24회 동기회 4500만원	△ 왕순모(30회) 30만원
△ 현태일(17회) 100만원	△ 25회 동기회 6470만원	△ 유영목(30회) 10만원
△ 17회마산동기회(김무삼, 송인창, 장광우, 최좌삼) 100만원	△ 김진철(25회) 1000만원	△ 유재일(30회) 10만원
△ 김길제(18회) 1000만원	△ 박맹우(25회) 30만원	△ 윤성덕(30회) 1000만원
△ 김재창(18회) 50만원	△ 강영남(26회) 100만원	△ 윤인태(30회) 50만원
△ 류종우(18회) 30만원	△ 김상현(26회) 500만원	△ 윤종순(30회) 30만원
△ 박석도(18회) 20만원	△ 김우갑(26회) 50만원	△ 이광봉(30회) 30만원
△ 박준성(18회) 20만원	△ 김중우(26회) 200만원	△ 이광희(30회) 20만원
△ 황준건(18회) 100만원	△ 김태권(26회) 10만원	△ 이기환(30회) 30만원
△ 김경재(19회) 100만원	△ 김 형(26회) 200만원	△ 이영준(30회) 30만원
△ 김문기(19회) 20만원	△ 김호용(26회) 200만원	△ 이인길(30회) 50만원
△ 김봉호(19회) 500만원	△ 배용호(26회) 50만원	△ 이학수(30회) 700만원
△ 김석윤(19회) 20만원	△ 성재업(26회) 50만원	△ 이한수(30회) 20만원
△ 김양근(19회) 50만원	△ 성재일(26회) 200만원	△ 이환기(30회) 30만원
△ 김영우(19회) 100만원	△ 양준영(26회) 50만원	△ 인준승(30회) 20만원
△ 김정국(19회) 10만원	△ 이규생(26회) 70만원	△ 임영수(30회) 50만원
△ 박종화(19회) 100만원	△ 이상원(26회) 100만원	△ 임영호(30회) 30만원
△ 성낙출(19회) 100만원	△ 이순필(26회) 50만원	△ 장영조(30회) 30만원
△ 안정모(19회) 20만원	△ 이영덕(26회) 100만원	△ 정영호(30회) 100만원
△ 이용흠(19회) 1000만원	△ 정거돈(26회) 100만원	△ 정승진(30회) 30만원
△ 이정희(19회) 100만원	△ 정국근(26회) 100만원	△ 정채화(30회) 60만원
△ 장흥의(19회) 500만원	△ 정익교(26회) 50만원	△ 천성일(30회) 10만원
△ 최화익(19회) 10만원	△ 조일제(26회) 10만원	△ 최상호(30회) 50만원
△ 황태경(19회) 20만원	△ 하원규(26회) 500만원	△ 최영규(30회) 20만원
△ 황태원(19회) 1000만원	△ 해주근(26회) 50만원	△ 최우철(30회) 500만원
△ 강석근(20회) 300만원	△ 류재길(27회) 10만원	△ 최재봉(30회) 100만원
△ 강영환(20회) 10만원	△ 윤종탁(27회) 10만원	△ 추태명(30회) 10만원
△ 김세준(20회) 100만원	△ 이요섭(27회) 30만원	△ 하규양(30회) 100만원
△ 김일석(20회) 100만원	△ 구영소(28회) 100만원	△ 하전근(30회) 10만원
△ 김태성(20회) 300만원	△ 김명영(28회) 100만원	△ 허영재(30회) 30만원
△ 김태영(20회) 500만원	△ 김용석(28회) 10만원	△ 황철민(30회) 100만원
△ 김형오(20회) 1000만원	△ 김형진(28회) 100만원	△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 박병철(20회) 500만원	△ 김홍중(28회) 100만원	△ 공광욱(31회) 50만원
△ 박영준(20회) 100만원	△ 노영현(28회) 200만원	△ 공종택(31회) 12만원
△ 백문찬(20회) 100만원	△ 박석환(28회) 100만원	△ 김경영(31회) 12만원
△ 신원기(20회) 200만원	△ 송명석(28회) 20만원	△ 김기정(31회) 100만원
△ 이실근(20회) 100만원	△ 윤경섭(28회) 100만원	△ 김만(31회) 100만원
△ 장상배(20회) 300만원	△ 이원철(28회) 300만원	△ 김성수(31회) 300만원
	△ 한수범(28회) 50만원	△ 김영철(31회) 12만원
	△ 김기영(29회) 50만원	△ 김재술(31회) 60만원
	△ 김대욱(29회) 3000만원	△ 김정덕(31회) 12만원

△ 김장택(31회)	12만원	△ 신상하(31회)	12만원	△ 최상규(31회)	12만원	△ 이재완(34회)	500만원	△ 김범성(41회)	20만원	△ 허치회(41회)	50만원
△ 김종호(31회)	120만원	△ 심규열(31회)	12만원	△ 최진섭(31회)	200만원	△ 이진호(34회)	200만원	△ 김봉준(41회)	30만원	△ 홍동운(41회)	30만원
△ 김진국(31회)	12만원	△ 심재홍(31회)	12만원	△ 최해영(31회)	12만원	△ 김동인(35회)	10만원	△ 김형률(41회)	50만원	△ 홍석우(41회)	50만원
△ 김태근(31회)	100만원	△ 안기수(31회)	24만원	△ 최효식(31회)	60만원	△ 김병수(35회)	10만원	△ 남관희(41회)	30만원	△ 41회 산악회	30만원
△ 김판택(31회)	12만원	△ 안우현(31회)	60만원	△ 하학열(31회)	120만원	△ 황운승(35회)	10만원	△ 류지섭(41회)	30만원	△ 이용상(43회)	10만원
△ 김현주(31회)	12만원	△ 오민일(31회)	300만원	△ 한공규(31회)	12만원	△ 김철원(36회)	100만원	△ 박정기(41회)	20만원	△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 김현철(31회)	12만원	△ 오용환(31회)	120만원	△ 허일현(31회)	12만원	△ 이동희(36회)	30만원	△ 백선민(41회)	10만원	△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 남기태(31회)	200만원	△ 이병태(31회)	100만원	△ 홍성수(31회)	120만원	△ 임창섭(36회)	10만원	△ 변영호(41회)	10만원	△ 부산교통공사용마회	100만원
△ 남철우(31회)	60만원	△ 이석우(31회)	12만원	△ 김창범(32회)	20만원	△ 김길영(37회)	20만원	△ 신동진(41회)	20만원		
△ 류명석(31회)	100만원	△ 이승진(31회)	12만원	△ 이병준(32회)	100만원	△ 김원범(37회)	10만원	△ 안광근(41회)	10만원	△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 박경수(31회)	200만원	△ 이재웅(31회)	24만원	△ 허규(32회)	10만원	△ 박용진(37회)	50만원	△ 유수호(41회)	10만원	△ 재동경문회	200만원
△ 박석기(31회)	100만원	△ 장건호(31회)	12만원	△ 계동원(33회)	30만원	△ 조영규(37회)	20만원	△ 윤성보(41회)	20만원	△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100만원
△ 박석두(31회)	100만원	△ 장성호(31회)	12만원	△ 김기산(33회)	10만원	△ 홍원석(37회)	10만원	△ 이경서(41회)	50만원	△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30만원
△ 박인정(31회)	12만원	△ 장재훈(31회)	12만원	△ 김법영(33회)	2,000만원	△ 황태운(37회)	10만원	△ 이경호(41회)	30만원		
△ 박종규(31회)	100만원	△ 장평우(31회)	300만원	△ 김재선(33회)	10만원	△ 박준표(38회)	20만원	△ 이양결(41회)	200만원		
△ 박희갑(31회)	12만원	△ 정분(31회)	120만원	△ 류장근(33회)	100만원	△ 오희진(38회)	10만원	△ 이종민(41회)	10만원		
△ 배정우(31회)	12만원	△ 정인화(31회)	12만원	△ 류홍영(33회)	30만원	△ 이종명(38회)	300만원	△ 이주하(41회)	30만원		
△ 서동균(31회)	12만원	△ 정정남(31회)	132만원	△ 박명진(33회)	2,500만원	△ 김도경(39회)	20만원	△ 이준석(41회)	10만원		
△ 서수교(31회)	100만원	△ 정철수(31회)	500만원	△ 박성병(33회)	10만원	△ 김진호(39회)	20만원	△ 장익조(41회)	10만원		
△ 서태교(31회)	100만원	△ 조성근(31회)	12만원	△ 백수현(33회)	50만원	△ 양정교(39회)	10만원	△ 정필상(41회)	10만원		
△ 성오용(31회)	12만원	△ 조영기(31회)	24만원	△ 서재영(33회)	100만원	△ 한성호(39회)	10만원	△ 조원호(41회)	10만원		
△ 손은정(31회)	12만원	△ 조현우(31회)	12만원	△ 이순환(33회)	1000만원	△ 강병오(41회)	10만원	△ 천성원(41회)	10만원		
△ 손정수(31회)	24만원	△ 최경우(31회)	32만원	△ 한상봉(33회)	100만원	△ 강석희(41회)	10만원	△ 최호열(41회)	10만원		
△ 손진기(31회)	12만원	△ 최봉근(31회)	12만원	△ 34회 동기회	1000만원	△ 김기영(41회)	10만원	△ 추교용(41회)	30만원		

합계 : 8억 4,969만원

기금기탁 관련문의
 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201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2011년 10월 25일 기준

* 총 2,789명 / () 는 2012년도분 선납부자

- 1회(4명) 박명현 박상필 고정동식 허종수
- 2회(1명) 박기화
- 3회(17명) 김용해 김희철 노관택 류영필 박인창 박준양 백영호 손주석 송두호 신정택 신현의 원호출 이 경 이안규 정규일 한준석 황성남
- 4회(23명) 고재환 김경식 김기홍 김상희 김유수 김종호 김종환 김주호 김홍숙 김희수 문택상 박석만 양종학 이남규 이명주 임영수 장수호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오제 조홍제 황갑생
- 5회(29명) 고광순 김석오 김영복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김형대 박명호 박봉식 박장후 박종구 박종삼 박종규 상기성 송두성 우명수 유병한 이경호 이문기 정경인 정진우 정필조 정희준 조갑제 진도영 최영철 최원구 홍관식 황홍성
- 6회(35명) 박우식 김상열 김태근 나오연 노재형 문교순 박기복 박영대 박재호 박종근 배문수 배상한 배종권 변영수 오영은 유상환 이갑삼 이현우 이희문 임경택 장재수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관승 조재영 조정규 현산우 최갑영 최병수 최석원 최한병 허택 (변영수)
- 7회(39명) 강청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덕재 김명환 김사동 김삼현 김영민 김용우 김중경 김준손 김태배 노해규 박재봉 박준배 배건식 배병우 서우찬 소진은 송의득 양종환 오동환 윤진현 윤치우 이광필 이동우 이민희 이상주 이진호 이창범 이태필 임성규 전연효 정보영 정성보 최장익 황용주 허종호 (김용우)
- 8회(35명) 강성태 구본식 권순걸 김동훈 김봉길 김자선 김재범 김진석 노재복 도은영 문동현 문정화 박동열 박우상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서진근 안종열 엄덕람 윤태영 이상복 이윤조 이종수 이종택 이정택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희욱 정금출 조윤재 지창수 최재혁
- 9회(52명) 강영진 고수홍 기기관 김동훈 김성택 김영국 김영문 김이도 김정규 김종호 김형 김갑성 노도원 박광식 박달희 박영복 박인복 박화철 선백규 신석현 신용익 안규현 안병환 원종희 유규열 유병철 윤일명 이기주 이동현 이대규 이순경 이영구 이주한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 목 정민주 조규대 조규양 조석부 조성진 조이호 조용길 지삼봉 차진환 최성욱 최한성 한동대 한득우 황영선 황오승 (원종희)
- 10회(52명) 강희운 고광수 고석명 고희재 권용술 김계순 김기호 김문희 김상규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영대 김정화 김재근 박재경 박종문 박현제 서봉원 서철하 신종우 심영환 오강욱 우병윤 이민식 이봉현 이승준 이연희 이의도 이정호 이재순 이지홍 이정복 이효술 장기상 장병태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종만 조갑수 조양태 조종제 진 강 차동원 최병도 최성열 하병용 하영수 허영오
- 11회(91명) 강용대 공상기 파정출 권태열 권병용 김달경 김두용 김병기 김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철 김인식 김정수 김재관 김재환 김중하 김태오 김학수 김형관 김효민 남호현 문 광 문준오 박관호 박봉출 박수경 박승우 박영하 박용관 박희태 백일규 백연균 서자은 서정호 서진갑 성기득 송인석 송호근 신대수 신유기 신현서 심재룡 안강태 안경문 양행두 염환호 오길훈 오원수 오정광 오종석 유용종 유용수 유재식 이강우 이계찬 이동휘 이병이 상석 이상현 이상태 이상학 이상훈 이상길 이재진 이정기 이종문 이종백 이종출 이태순 이태수 정대환 장병수 장영권 정연순 정은표 정주식 제점오 천금춘 천

- 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최태원 하용우 현정훈 (박희태)
- 12회(95명) 강본순 강수현 강이수 강종신 강청수 공문 판진영 권시킴 권연호 권연상 권익 김기수 김기인 김민철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상희 김석근 김선일 김성찬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원경 김익도 김장욱 김종수 김종일 김지명 김지희 김진갑 김창진 김철기 김훈호 김희련 김철종 남기용 문재권 박민기 박보국 박상도 박영운 박영환 박용운 박재영 박정윤 박종수 배기원 백순근 백장식 변동만 서병기 서상현 손세준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안태섭 양학규 오세정 옥계한 윤학근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승훈 이영길 이윤언 이유희 이원우 이일채 이준복 이현달 이환철 임정명 임창만 장동석 장일근 장지흠 장대식 정수복 정의철 정호중 조한기 차수명 천금대 최병진 최병준 한현수 허은도 홍두표 (최병준)
- 13회(109명) 강귀동 강진조 강영삼 고송구 권영계 권영태 권영환 김간용 김규현 김동호 김 무 김무조 김민철 김상한 김성대 김승기 김승연 김신부 김영명 김장웅 김경균 김정석 김정일 김종의 김치덕 김한규 김형

- 민영 허종
- 15회(81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정일 구병준 권대식 권승부 김길영 김너명 김상용 김소현 김쌍영 김양일 김양정 김옥규 김윤배 김창환 김종태 김중환 김중기 김창규 김철영 남기주 남암순 노기수 명호근 박세갑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종석 박찬호 박철양 박호기 배성훈 서정욱 성한표 손부홍 송길용 신동은 신용기 신현열 오봉석 원성용 윤휘정 이상호 이상근 이승남 이승우 이상훈 이정부 이재원 이종명 이 준 이지모 임영길 장봉고 장종호 정갑수 정석우 정영부 정준수 조규중 조상호 조영일 조일광 주상학 주정중 최진모 최태치 최병우 최원수 최의수 마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상석 홍익찬
- 16회(111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병규 권명석 권복술 권의강 급성규 김광수 김길정 김덕찬 김박일 김상용 김연호 김영우 김웅진 김인국 김일규 김정균 김정부 김정호 김 조 김종석 김한문 김철근 김홍길 김태일 김관규 김현희 김형서 김휘부 노상현 노현소 문성환 민병룡 박광자 박두영 박민소 박소용 박영기 박용일 박원호 박종복 박종영 방수근 배정희 서고명 서병용 서정호 서효소 설희순 성기식 손경식 송규정 송태남 안국정 양성민 양휘부 여성국 예광해 오광치 오정일 오영철 옥무술 옥윤석 유영명 윤영식 윤희주 이경림 이계운 이광민 이규방 이균오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병숙 이상대 이상철 이선규 이상근 이영재 이종승 이종철 이재원 이정원 이요

- 손영종 양용길 오재동 우원호 유영석 윤훈수 이근배 이규희 이덕수 이대운 이성수 이상일 이승은 이영호 이일수 이흥기 이흥남 이형석 임영섭 임재영 전상관 전영석 정우용 정재호 조성재 최경용 차명석 채수일 최진수 최희영 한동욱 허만조 홍순배 홍우재 황창우 황광건 이복봉명2명 (윤봉수)
- 19회(112명) 강영범 강환섭 고광호 고로찬 공영섭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재 김봉호 김석규 김석운 김성봉 김성욱 김성진 김성희 김수권 김순호 김영득 김영우 김영진 김영택 김윤기 김인선 김일택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철호 김형택 남병근 남진현 남태현 문관진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성주 박성철 박종화 박차현 배무삼 배영구 서세복 석무관 성낙출 손발현 손철수 신동인 신원철 심재구 안정모 양승수 양학기 오일환 옥인영 유문환 윤영규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수현 이양환 이윤홍 이윤홍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원 이춘만 임영수 임장주 임재원 임태석 장조훈 장홍의 정규범 정극수 정기영 정수남 정용식 정영연 정태을 조경래 조성환 조세현 조순재 조재운 진수상 진홍재 최봉우 최상원 최영식 최정화 최희의 탁준식 한명섭 한종환 허남걸 허홍욱 홍성봉 황성진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 20회(83명) 강병천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구병훈 구영남 김두영 김명표 김성봉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우홍 김일석 김동민 김주경김진환 김찬만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형기 김형오 김홍직 김희석 남경열 남기석 북일진 문광은 문성재 문현남 민영기 박옥양 박용덕 박종락 박종화 박 준 박천용 박태수 박형준 배준태 배완균 서상희 설창환 손순봉 신윤환 신원기 신태근 심두수 심원식 양승태 양태운 여정호 오경석 오기현 윤병규 윤봉태 이권기 이법주 이일근 이영오 이우종 이종열 이천규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국택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정음로 조영철 조윤태 채경석 최명호 최장하 최종경 최 월 한계정 허규판 허남균 홍순태 (강병천 양승태 오기현)
- 21회(117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철 강현태 강중수 강태순 공기화 구정모 구현수 권용호 김대용 김동우 김동현 김문근 김병형 김부근 김상택 김석배 김순일 김영삼 김원달 김유근 김일근 김조영 김지호 김한규 김현태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봉출 박영석 박일승 박재명 배영일 배 일 배태상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서정원 성상철 성정근 손양덕 손원조 송원경 심광석 심상진 안상갑 안승현 안재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우성근 유일근 육화현 윤대희 윤상철 윤순오 이강남 이동희 이동훈 이문수 이상기 이상철 이세진 이세원 이세희 이영훈 이이규 이일덕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영규 이영준 이준석 임경범 임성출 임정기 전재호 전우성 정수훈 정연호 정익주 조갑식 조병규 조상호 조화래 조현규 조현영 조호제 진영천 최규용 최동환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최종민 최창희 탁원명 한광수 현대운 한용태 한인환 한행원 허영도 허창수 황동규 황영실 황원성 (강삼태)
- 22회(113명) 강준홍 강봉기 강상태 강성봉 강호일 강희태 고인준 권영규 김광국 김광무 김도살 김동명 김동진 김명수 김명준 김명효 김부술 김성재 김수열 김승규 김완식 김우홍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진영 김진철 김천수 김창두 김창재 김학관 김해원 김형경 문성철 문원경 박문화 박상갑 박승복 박인표 박윤재 박재상 박준호 박찬명 박철민 박현철 박호병 박홍조 반병일 방영수 배병환 배석안 배은식 배호원 배훈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근시 부정천 서경덕 손병용 손연모 손운섭 송기영 송원준 안계환 안진환 안홍현 여상규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기현 윤한복 이동원 이승희 이영화 이윤규 이지백 이흥기 장광환 장

▶ 회보 구독료를 내주신 동문님들께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회보 구독료를 아직 내지 않은 동문님들께 = 연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경비 부족으로 회보제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회보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태 김홍석 김홍수 김홍철 노경규 문 창 박건일 박안남 박원길 박일용 박종택 박진태 박용일 박용표 배대결 배정운 서대회 서시주 서영웅 서영환 손진익 송민일 신동배 신민철 신용태 신하근 심관섭 심진영 안준수 양길승 오광희 오상찬 오원수 오한수 윤기갑 윤태도 이경재 이경준 이명진 이상근 이상빈 이윤용 이유경 이응재 이정범 이정호 이준범 이창원 이창호 이현서 이형제 이태남 이태람 인소철 임영홍 장영길 장용웅 전복룡 전중신 정병치 정보상 정문화 정순화 정은섭 정종현 정철기 제병민 조병성 조용갑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동환 최병영 최상호 최태환 추지석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대 (장용웅 정문화 제병민)
- 14회(78명) 강수현 공홍일 구자신 김동화 김성부 김수웅 김영대 김영식 김영우 김현관 김용근 김용우 김일길 김재도 김중선 김 흥 김형수 김화옥 남기우 남우준 노성수 노수덕 문정필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원수 박정길 박정길 박정출 박해동 반미태 반성호 성이경 손광웅 신기서 신유진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오성환 유정호 유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근하 이동식 이동영 이수남 이재돈 이창언 이환균 이요근 이윤일 장병출 장우일 전상배 정상배 정선연 정현구 정 월 조규향 조기정 조영봉 진선대 최건차 최낙선 최병현 최성욱 최종락 최태만 하진봉 한규환 한수길 함영철 허

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남식 정동철 정성수 정진식 정해진 조윤재 조장현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식 최광욱 최영택 최일용 최영민 최호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영우 허남명 허범도 허승조 허은홍대구 활영환

23회(121명) 김인홍 강구원 강창보 고용석 구대우 구영수 구준욱 권오중 김기일 김길수 김덕우 김동욱 김동욱 김상수 김상영 김상현 김상호 김석현 김성덕 김성호 김영기 김영철 김영해 김원철 김익근 김재봉 김정록 김정환 김주찬 김중광 김태성 김태용 김태홍 남상률 노영배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서관 박수갑 박인규 박재관 박종만 박철병 배종순 배준서 백영영 서상병 서승환 서영수 서한현 송영준 송은재 송승송 신경재 신해철 심수병 안범두 안병관 안병을 안병화 안성민 안태진 오도준 옥치범 유봉환 유석산 유원형 윤만수 윤병조 윤순현 윤입환 윤종관 이대우 이동성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상현 이수백 이 순 이승구 이용원 이윤석 이원희 이일원 이정욱 이종을 이종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병규 전두수 전상대 전영조 전제홍 정갑은 정귀출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희원 조규직 조맹제 조민제 조윤종 조한용 조현표 재병윤 최인식 최인표 최준출 최호덕 하복진 하승운 허기웅 허대중 허병상 홍영희 (윤순현)

24회(117명) 강동우 강창덕 강철홍 공문수 곡두희 구자용 권상철 권해영 김경남 김규철 김덕용 김덕용 김동은 김만복 김명배 김부성 김성권 김성득 김수용 김승택 김영민 김영민 김영철 김우중 김윤섭 김유신 김인규 김종환 김준기 김진우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김현택 김호기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만기 박맹렬 박성표 박영근 박인호 박정문 박창종 박창호 박태식 박홍규 변정규 서순상 서정대 서정록 석문식 성정경 손세영 손종식 송태근 신병식 신장우 안상수 안형도 안형수 안순권 양희복 여철우 원동희 원봉준 윤지현 이기원 이동진 이동희 이명복 이상찬 이 수 이재능 이재성 이정희 이재무 이현영 이현재 이호구 임택철 임민호 장민재 장성기 장현동 전대현 전상현 전운우 정광용 정기호 정동수 정명근 정부일 정영덕 정영석 정철화 조병제 조용건 조용화 조태홍 진병건 차동렬 차분공 최원주 최진우 최원규 태정업 하성기 하재갑 한상렬 한승철 허구원 홍용기 황성동 황성훈

25회(89명) 강용주 권수갑 권태용 고명식 김근우 김경환 김구와 김길수 김남일 김태현 김덕우 김동식 김동진 김 령 김봉철 김상경 김상수 김성환 김수국 김수석 김영수 김열회 김옥권 김용범 김우형 김장영 김재홍 김정태 김종국 김종만 김종택 김종현 김진철 김철수 김태선 문재인 박기환 박동건 박명우 박세철 박정용 박종기 박종찬 박현구 박호철 박흥기 백승이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서창재 성경출 손국영 송영근 송영기 송호상 안용은 오양택 윤희대 예종복 이계성 이대우 이동의 이동호 이석희 이창훈 이홍익 임상택 장선근 전상태 정수성 정진배 정철수 조광제 조 의 최상봉 주재길 진익철 최동하 최영관 최지환 탁준길 태명산 한준서 허만택 허택

26회(112명) 강도식 강맹원 강수남 고경환 고석훈 권영인 김기성 김두현 김만석 김상현 김영성 김영춘 김용찬 김윤철 김재수 김재용 김정근 김정원 김종배 김종우 김철원 김재영 김태규 김 령 김호용 나정우 노영석 문상원 박경재 박남식 박대철 박복수 박상호 박원세 박인섭 박장현 박재욱 박종국 박준호 박만기 박효대 방홍기 배용호 배종규 백문현 백병은 백재업 백재일 손욱호 신기웅 신대철 신동준 신재호 안길호 양준영 양희권 왕정일 왕희서 유근욱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윤종섭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상만 이순철 이승무 이우상 이재하 이정근 이종진 이주창 이주형 이현섭 이희준 장만우 장원용 장희석 정국근 정문기 정수진 정영철 정윤철 정익교 정태현 조민규 조일제 조태웅 조태금 지용섭 차인식 추창규 최성택 최영선 최희수 최창호 하성봉 하원규 하주관 한창택 함재우 현동우 홍정근 홍영택 황광수 이듬별명1명 (이규용)

27회(82명) 강봉호 강윤병 강주훈 강태영 곽태홍 권병보 공민배 김경종 김경진 김광철 김병욱 김병철 김상문 김성주 김안석 김영삼 김원보 김원용 김일리 김재연 김종도 김종준 김지연 김진명 김 철 김태우 김태운 김호근 김홍근 김황열 김홍근 나희철 류재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승준 박정민 박종국 박치호 박효근 반정열 백민호 신한원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윤모성 윤정환 윤종락 윤지환 이기우 이광현 이근부 이봉춘 이상용 이원철 이요섭 이인규 이정원 이종찬 이현식 이철 이 현 이형복 장성철 장창조 장해성 전태원 전풍 정두식 정민화 정원재 조민제 조봉관 조용수 탁승주 하영제 한상훈 한수길 황지명 이듬별명1명

28회(91명) 강용수 강현안 권기택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남규 김대생 김도현 김동수 김만중 김부운 김영철 김용섭 김용희 김준배 김준연 김창중 김철수 김태완 노영배 노영현 노상천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영제 박진국 박진주 박진화 박효성 배명철 백영호 백진수 서기희 서영대 성락문 손관락 신영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우건식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명일 윤일희 이경포 이민우 이송하 이양훈 이윤남 이윤일 이윤규 이윤태 이정기 이종대 이종환 이창순 이현성 임광수 임익성 임재택 전광병 전병철 전재만 전학명 정백수 정인식 정해영 조대원 조석태 주종목 최강호 최경태 최광태 최연욱

최한웅 한기웅 한봉석 한영호 허명근 황태봉 황홍성 이듬별명1명 (신중현 윤병일)

29회(106명) 강대용 강성훈 곽태섭 권오영 권윤대 금시환 김갑태 김기민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병욱 김부근 김상규 김영준 김용식 김인술 김중명 김종진 김재현 김진영 김철오 김태완 김태호 김호성 류영광 문백석 문창현 민동식 박경환 박광수 박근우 박기찬 박등일 박문규 박병률 박성철 박인규 박인병 박정환 박장인 박정수 박준도 배현호 백성욱 변종만 서봉고 서석희 손영보 손용택 손재찬 손태권 송철호 송희태 신병철 신영주 신필근 신현수 신홍기 안정홍 양길용 양성봉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종경 윤선영 윤형근 이병근 이병우 이상진 이석조 이수돈 이송호 이양 이양호 이정윤 이재한 이준환 이호근 임용호 장광태 장 만 전영성 전창화 전현수 정 김 정대원 정순정 정종기 정진환 조창열 조한우 주재휘 최기훈 최문성 최정만 최종열 하연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재성 황유명 이듬별명1명

30회(110명)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남 김경섭 김기섭 김기일 김백수 김성복 김성은 김승범 김영욱 김영일 김영호 김용한 김인섭 김정용 김재수 김재일 김종진 김종관 김진영 김장근 김해곤 김현태 노동준 도문성 마장수 박규안 박병규 박성태 박수송 박용서 박원호 박재택 박종배 박진명 박희관 배기경 배승한 배종민 백기연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창덕 서하수 손승택 송철수 송한식 신구근 신도현 신인기 심봉수 안종화 오경일 옥유진 유영택 유재일 유원덕 윤영학 윤인태 은현수 이광희 이근우 이기환 이상범 이석기 이수성 이영준 이정열 이종현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훈상 전경재 전은서 전준호 정광덕 정규용 정기룡 정부광 정성원 정성진 정영호 정용하 정재화 정태환 정해석 조순영 조승환 조용업 천성일 채영재 최거훈 최근석 최석범 최영규 최우철 최원수 최진근 하영동 허선형 허영재 홍인기 황철민

31회(83명) 고영호 공광욱 공종렬 김근호 김명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하 김정덕 김종근 김종호 김창환 김태근 김관덕 김현주 김호성 김효연 남경수 남기태 남철우 류명석 문성일 박경수 박덕종 박삼범 박세환 박용관 박인정 박종호 박준석 박준열 박희갑 배정우 서동근 서태고 성보경 손영태 신상하 신수열 심재홍 안우현 안중수 양문서 양석환 오민일 오윤환 옥봉근 옥치호 윤석중 이태철 이병근 이병태 이상일 이석식 이승원 이재용 장근호 장성호 정부서 정용정 정원규 정정남 정철수 조대진 조영기 조원우 차인용 전창호 최경우 최상규 최상용 최재선 최재식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태영 하병수 하병관 허일현 홍 구 홍성수 이듬별명1명

32회(47명) 김광기 김대식 김상범 김영길 김영현 김재하 김정열 김홍식 김창범 김해제 류성범 류현희 문창진 민길식 박상학 박성규 박우상 박효식 신국선 신명환 신중현 신한국 안병철 안태원 양문성 양성기 우득현 유기준 윤종열 이근우 이병환 이병준 이병훈 이상호 이승건 이종수 이진규 이태운 이현용 임태근 장문석 정용수 정용운 정의주 조춘식 최영훈 최재영 (김홍식 이병준)

33회(57명) 계동원 고창성 공진환 김근수 김기산 김범영 김재도 김재선 김재익 김종만 김종인 김종현 김진일 김 철 김 혁 남경태 노동현 류장근 류종남 민병현 박명제 박명진 박치호 박태경 박태종 방만준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립 송재봉 신동현 신용준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양승국 여영창 윤태웅 이 건 이광호 이득근 이윤조 이창훈 장남국 장정석 정영호 정인식 조영학 주기훈 최성현 최영두 최윤남 최호경 한상봉 황규태

34회(33명) 강승기 과수군 구동희 김규혁 김동욱 김두선 김영옥 김태하 김희영 노인선 문종철 박기훈 박재욱 박종수 박철호 양철용 오상민 오송대 옥재명 이강희 이은수 이재관 이진호 장창명 정노혁 정연호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상봉 최광필 홍승현

35회(35명) 구자민 김동일 김명환 김세정 김우경 김우신 김정환 김태근 김홍근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박세종 박의병 백운은 성창용 손수범 손태섭 안종일 이남기 이남철 이병일 이복근 이영오 이원우 이창성 임형전성을 조홍섭 주귀홍 전현석 채인석 최근식 홍성표 황용순

36회(41명) 권일복 김근수 김길호 김택환 김병주 김성복 김수진 김영훈 김종오 김종일 김준안 김철원 김현호 김희환 남우진 문용민 박영준 박영찬 박철종 신용덕 안영호 안재익 양석용 윤용수 이동희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국 임서용 임창섭 임창의 정인식 주보훈 최승호 최필선 최필조 하재철 한영식 홍의창

37회(32명) 강태우 권기원 김민호 김성현 김영근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문진형 문희영 박규배 박용진 박익관 서영태 성창수 안명도 안지태 양귀수 이상백 이종근 전인수 제갈재환 조상현 조성각 조영규 최규철 하태민 허부남 허 찬 홍원석 홍병일 황태운

38회(26명) 곽동열 김문철 김상규 김석규 김성철 김영철 김원철 김판준 김현민 남기정 노재원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준표 심재영 오승인 유관재 윤경만 이창호 정인철 정준기 조용철 주재훈 최 철 최규경

39회(18명) 김도경 김윤용 김중엽 김희영 배효민 손석호 신동준 윤동배 이상태 이준영 이진호 이창훈 장영욱 장윤해 정도연 정성운 정진해 현용준

40회(25명) 김경환 김성진 김성환 김영진 김원주 김정현 나수민 문형욱 박근식 박성범 박용제 배병훈 배영진 신상룡 신정업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대선 이영철 이수원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최태훈

41회(20명) 김득수 김범성 김봉준 김성수 김인수 김형률 박동규 박정기 박정의 송인환 안광근 윤영원 이경석 이경호 이양걸 이윤서 이종민 하범종 홍석우 홍종철

42회(8명) 김동수 김태구 남화정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정홍준 제정환 (박동식)

43회(6명) 김진수 문기택 박태건 이용상 정용훈 황만철

44회(19명) 강경호 김재영 남경민 박석근 박찬익 배봉건 서영민 송동근 우도근 이대환 이창용 임정훈 정영민 정종운 조영호 조원우 진성재 최종혁 박정환

45회(8명) 김성남 박상화 박 용 장성익 박상화 오승현 이규진 진상영

46회(2명) 김석민 이주용

47회(6명) 고담우 김동민 성성용 임형길 장문기 정기주

49회(4명) 김성재 김학근 전선우 최진영

50회(5명) 김재운 박인창 박현욱 유자수 이상준

52회(1명) 김용혁

53회(1명) 이재홍

55회(1명) 김태린

*기수별명(11명) 김경도 김상현 김세희 김용환 박수입 박수임 신시연 이상열 이종규 조명관 최수진

*기수&이름별명(2명)

*기타(1명) 성환진

*해외(12명) 미 북가주지역동창회

구독료 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실 황유명 국장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2011년도 회비 납부현황 (2011년 10월 25일 기준)

1. 회장단

- 회 장: 오거돈(21회) 3,000만원
- 자문위원: 양종학(4회) 한동대(9회) 오완수(11회) 허민영(14회) 박가식(17회) 김길제(18회) 김영우(19회) 남진현(19회) 장홍의(19회) 황태원(19회) 이상 100만원 이길상(6회) 50만원
- 수석부회장: 허범도(22회) 500만원
- 명예부회장: 김형오(20회) 100만원
- 부 회 장: 박상호(26회) 500만원
- 송정규(25회) 류명석(31회) 박명진(33회) 장인화(35회) 이상 300만원
- 서덕수(21회) 여환부(21회) 임경범(21회) 전우성(21회) 조호제(21회) 최원종(21회) 정상건(23회) 노상우(24회) 박창호(24회) 김진철(25회) 박맹우(25회) 박종찬(25회) 최동하(25회) 박영빈(27회) 윤경섭(28회) 이원철(28회) 최강호(28회) 박성철(29회) 조한욱(29회) 김현태(30회) 윤성덕(30회) 최우철(30회) 오민일(31회) 김법영(33회) 류장근(33회) 김용백(34회) 허부남(37회) 우영환(40회) 백창봉(41회) 이상 100만원

2. 동기회

기수	본부 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9회	500,000	200,000	700,000
10회	600,000	-	600,000
11회	600,000	300,000	900,000
12회	-	-	-
13회	-	-	-
14회	900,000	500,000	1,400,000
15회	-	-	-
16회	-	-	-
17회	-	-	-
18회	1,200,000	800,000	2,000,000
19회	1,200,000	800,000	2,000,000
20회	1,500,000	1,000,000	2,500,000
21회	1,500,000	1,000,000	2,500,000
22회	-	-	-
23회	1,500,000	1,000,000	2,500,000
24회	1,500,000	1,000,000	2,500,000
25회	1,500,000	1,000,000	2,500,000
26회	-	-	-
27회	1,500,000	1,000,000	2,500,000
28회	1,500,000	-	1,500,000
29회	1,500,000	1,000,000	2,500,000
30회	1,500,000	1,000,000	2,500,000
31회	1,500,000	1,000,000	2,500,000
32회	-	-	-
33회	1,200,000	800,000	2,000,000
34회	1,200,000	800,000	2,000,000
35회	-	-	-
36회	1,200,000	800,000	2,000,000
37회	-	-	-
38회	-	-	-
39회	900,000	500,000	1,400,000
40회	-	-	-
41회	-	-	-
42회	-	-	-
43회	900,000	500,000	1,400,000
44회	-	-	-
45회	500,000	200,000	700,000
46회	-	-	-
47회	-	-	-
48회	-	-	-
49회	-	-	-
50회	-	-	-
총계	25,900,000	15,200,000	41,100,000

■ 삶의 현장... 용마가 달린다 ③ / 부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뱅커' 박규배 동문(37회)

“돈 맡겨주시면 키워 드립니다”

금융자산 설계 관리전문... 부자들끼리의 '중매 서비스'도 제공

박규배 동문(37회)을 만나보면 첫눈에 그가 은행원임을 눈치 챌 수 있다. 잘생긴 얼굴에 사근사근하면서 교양과 인품이 묻어나는 언행, 단정한 옷차림에서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그는 현재 부산 해운대 우동 아텔리스 2층에 있는 국민은행 해운대PB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PB'란 프라이빗 뱅킹을 말한다. PB센터는 일반 고객들이 아닌 돈 많은 사람들만을 상대로 거래하는 은행지점이고, 센터장은 지점장의 다른 이름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 근무경력이 20년째다. 국민은행 서울본점과 서울 청담동P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올 초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해운대PB센터장으로 부임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으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라고 했더니 "그 해 우리 기수에서 서울대에 30여명쯤 합격했다"고 했다.

그를 포함해 9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해운대PB센터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고객 수는 약 4백여명. 주 고객을 '1인당 5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업무는 돈을 예치 받아 관리해주고 적절한 투자처를 추천, 수익을 높여주는 일이다. 주로 사모펀드나 신탁상품 등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을 1대1 상담을 통해 추천,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박 동문과 그의 직원들은 부자권유 등 자산관리 외에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절세 방법, 부동산 소개 등등이다. 국민은행에는 부자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올려놓는 내부통신망이 있다. 이 내부통신망에 올라 있는 '돈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들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소개 수수료는 없다.

PB센터가 하는 일들 중에는 '혼사(婚事)서비스'도 있다. 혼기가 찬 자녀를 둔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양쪽 부모들의 경제력,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서 집안어른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준다. 즉 중매쟁이 역할인데 이 서비스가 의외로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좋다고 한다. 성사되면 양쪽 부모들을 단골고객으로 붙잡아 둘 수 있어서 은행으로도 도움이 된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객들만 상대하다보니 박 동문에게는 부자를 보는 눈이 생겼다. 그가 만나는 부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쌓은 사람, 즉 '자수성가형 부자'와 부모 잘 만나 재산을 물려 받아 부자가 된 사람, 즉 '타고난 부자'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부자들은 작은 것 까지도 철저히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했다. 박 동문은 "아껴 쓰되 써야할 때는 아낌없이 쓰는 그런 부자가 존경받는 고객"이라면서 "자선사업 등에 기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모으고 키워 나가는 것도 결국 잘 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가끔 재산 자체가 목적인 듯한 고객도 만나게 된다"며 "재산은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입념으로 자녀에게 스스로의 앞날을 개척할 기회를 미리 주지 않아 '부자 3대'가 아니라 그 다음 대에서 바로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산에 온 이래 각종 동창회 모임이나 동기모임에 부지런히 얼굴을 내민다. 동문들을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다. 그는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준비부족 상태에서 맞이하는 노후문제가 메가톤급 폭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금융자산 관리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규배 동문. 20년 경력의 '용마뱅크'다.

그는 "금융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과 은행 간의 신뢰"라며 "동문 선배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 설계 및 관리 전문가다.

고향인 함양에 농사짓는 부모가 살고 있고 서울에는 아내와 두 아들(고2, 중1)이 있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이면 상경한다고 했다. 취미는 골프이나 잘 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동창회 일꾼들

해운대지역총동창회 사무국장 박태종 동문(33회)

“모임 알리는 우편물 9백여통 보내도 참석율은 저조”

박태종 동문(33회)이 해운대지역총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은 것은 지난 1월부터. 동기인 김법영 동문(김영정 해운대병원장)이 해운대지역총동창회 회장을 맡으면서 부터다.

그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를 졸업(1986년) 한 뒤 의료기무역회사에 다니며 서울에서 18년간 살다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에 왔다. 2009년부터 동기 김법영 동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행정이사로서 일하고 있다. 병원 살림도 그렇지만 동창회 살림 역시 '딱 부러지게 한다'는 병을 듣고 있다.

동기들의 골프모임인 '33골프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등 동창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성적이다.

해운대지역총동창회는 홀수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정례모임을 갖는다. 이 때마다 박 동문은 주소가 파악된 동문 9백여명에게 일일이 우편물을 보내고 모임이 임박해서는 따로 문자메시지도 8백여통이나 날린다. 우편발송료만 해도 한번에 40만원이 든다. 그런 데도 참석자는 고작 50명 선.

박 동문은 "물론 너무 많은 동문이 참석해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해운대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동문 수에 비하면 참석자가 너무 적다"며 "앞으로 해운대지역총동창회 내에 등산회 골프모임 등을 따로 만들어 동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제대를 앞둔 아들, 고 2학년인 딸을 두고 있다. 취미는 골프로 핸디캡은 15.



50회 동기기 사무국장 김석훈 동문

“동기기 중 막내기수여서 서러움도 많아요”

50회 동기회는 우리 동창회에 결성돼 있는 동기회들 중에서 막내기수이다. 동기회를 결성한 것은 졸업(1996년) 13년만인 2009년. 김석훈 동문은 동기기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후 계속 사무국장을 맡아 동기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50회 동기회는 매 홀수달 셋째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보통 20명 정도. 김 동문은 "동기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지만 참석 여부를 문자메시지로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 힘이 든다"고 말했다.

50회는 기별야구대회에 3년째 출전했는데 김 동문도 내리 3년째 우익수로 참가했다. 첫해에는 42회와 불이 켜고, 둘째 해에는 36회와 불이 켜져서 또 켜졌다. 그러나 지난 10월8일 열렸던 37회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0:0으로 지고 있다가 7회에서 16:15로 역전승, 3년만에 첫승을 거뒀다. 그 때 동기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본부 동창회의 행사나 모임에 가면 우리 기수에게는 발언권이 잘 주어지지 않는 등 어린이에 취급하는 것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며 "51회 이후 후배동문들이 하루 빨리 동기회를 결성해 동창회에 참여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50회가 '막내기수'라는 딱지를 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연산지점에 재무설계사로 재직 중이다. 부인과 2012년 2월에 태어날 딸을 기다리는 예비아빠다.



동기회 소식

◇ 21회 = 자갈치 명물횃집에서 임시총회

지난 10월 7일 자갈치명물횃집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발위 기금모금에 관한 중간보고 및 기별야구대회, 경부합동산행, 가족동반가을야유회 홍보와 참석 독려에 관한 건이 토의됐다.

◇ 24회 = 부산 송도에서 2011년 하계캠핑

지난 8월 27일 ~ 28일 부산 송도 일원에서 하계캠핑을 개최했다.

서울, 부산, 창원 등 각 지역에서 모인 동기들은 유엔관광호텔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진 다음 해변에서 맥주·과일 파티를 즐겼다.

이튿날에는 암남공원, 해변구름다리를 산책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30회 = 이사회에서 경부합동소풍 등 논의

지난 10월 5일 부산 구서동 소재 '경화궁'에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부합동소풍 참가에 관한 홍보와 토의가 있었으며 24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 32회 = 임시총회 열어 현안 논의

지난 9월 22일 부산 중앙동 소재 '마린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기회 사무실 이전 및 기별 야구대회, 모교발전기금에 관한 사안이 토의됐다. 이날 모임에는 25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 38회 = 제2회 체육대회 성대 개최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교 운동장에서 제2회 체육대회를 가졌다.

내년 졸업 30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단합을 위해 가진

이날 체육대회에는 동기 및 그 가족 등 1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41회 = 이사회에서 가족합동 월례회 등 논의

지난 10월 6일 자갈치 '엄마손 품장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1년 수입 지출 중간 결산 및 2012년 예산에 관한 건, 기별야구대회와 가족 합동 월례회, 동호회 활성화의 건 등이 토의됐다.

지역, 직능동창회 소식

◇ 창원지역동창회 = 거제 일원에서 하계수련회



지난 9월 25일 경남 거제 일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마산역에서 집합한 동기들은 거가대교를 거쳐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및 대금산 등을 두루 관광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용마회 = 20여명 모여 단합대회

부산시공무원 모임인 용마회는 지난 10월 4일 민락동 수정집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허범도(22회·부산시정무부시장) 수석부회장의 주재로 이루어졌으며 마창수 용마회장(30회) 등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다졌

다. ◇ 수영구지역동창회 = 창립 위한 발기대회



부산 수영구지역동창회 창립을 위한 발기대회가 지난 10월 4일 광안리 소재「해초목」(23회 박기욱 동문 경영)에서 열렸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모임에서 정식 창립총회는 내년 1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회장에 정상건(23회·좋은강안병원 부원장) 등문을 추대했다.

◇ 통영지역동창회 = 김덕용 동문에게 '행운의 열쇠' 전달

지난 9월 24일 회갑을 맞은 김덕용 동문(24회, 성지수산 대표)에게 '행운의 열쇠' (순금 3돈)를 증정했다.

김덕용 동문은 통영지역동창회의 제10대 회장(2007년~2009년)을 맡아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통영지역동창회에 등록된 회원은 33명이며 매달 월례회를 갖고 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회장은 서상호 동문(27회, 통영중 교사)이, 총무는 김기산 동문(33회, 거제육포고 교감)이 맡고 있다.

◇ 龍建會 = 차기회장에 원동희 동문 선출

건설 관련 동문모임인 용건회는 지난 9월 22일 총회를 개최, 류종우 회장(18회)의 후임회장으로 원동희 동문(24회·동남개발주식회사 대표)을 선출했다.

어디서 무엇을...

<12회>

△추영재 =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 아파트 105동 603호

<13회>

△김승언 =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강변동 원A. 105동 2403호 △문형재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대석휴먼시아 110동 905호 △박진태 = 10월 22일 장남 결혼, 광안리라스코스웨딩홀 △변종길 = 10월 2일 딸 결혼, 코모도호텔 예식장 △신민철 = 10월 22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길영 = 10월 23일 모친상, 서울성모병원

<14회>

△김홍관 = 11월 26일 차남 결혼, 에버2000웨딩홀 △남창희 = 9월 9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박남조 = 10월 29일 장남 에버2000웨딩홀 △박해인 = 9월 15일 모친상, 서울 삼성의료원

<15회>

△김도훈 = 극단 뿌리 대표, 9월 20일 ~ 10월 3일 극단 뿌리 35주년 연극 'Q요리, 그게 뭐지요' 공연,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16회>

△강인근 = 11월 12일 장남 결혼, 밀레니엄 서울힐튼 △김정부 = 9월 24일 장남 결혼, 창원 대우컨벤션웨딩홀 △김판규 = 10월 15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손한조 = 10월 2일 장남 결혼, 창원 엘리시아웨딩홀 △신현호 = 10월 15일 아들 결혼, 서울 사랑의교회 △옥윤석 = 12월 24일 딸 결혼, 해운대 마리나센터웨딩홀 △이

종승 = 10월 29일 차남 결혼, 서울 리치컨벤션 △조길우 = 부산 동래구청장, 10월 15일 장남 결혼, 부산웨스턴조선호텔 △조재중 = 9월 27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최현우 = 10월 8일 딸 결혼, 서울 에너버서리청담

<17회>

△김성오 = 10월 22일 장남 결혼, 남천성당 △김조일 = 11월 12일 장남 결혼, 오산그랜드웨딩문화원 △박용언 = 10월 30일 장녀 결혼, 서울 노블레스웨딩컨벤션 △배건화 = 10월 16일 장남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정창신 = 10월 15일 차녀 결혼, 서울 엘웨딩홀 △조용운 = 10월 9일 장남 결혼, 부산 메리움 국제신문사점 △조용희 = 9월 24일 장남 결혼, 서울 논현동성당

<19회>

△김성진 = 9월 24일 아들 결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김석구 = 10월 9일 아들 결혼, 해운대센티호텔 △김현 = 9월 6일 딸 독창회,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문무영 = 10월 29일 아들 결혼, 엘리시아웨딩홀 △이수천 = 10월 18일 장인상, 서울대병원 * 부산동기회 사무실 이전 = 부산시 중구 대청동3가 1-3 대한B/D 3F 302호

<20회>

△류영덕 = 9월 27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서동춘 = 10월 22일 장녀 결혼, 서울컨벤션, 10월 23일 장모상,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21회>

△강규섭 = 9월 28일 부친상, 진주 경상대

병원 △구정모 = 9월 24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김규 = 11월 12일 차녀 결혼, 서울 엘타워 △김동현 = 8월 19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이익규 = 10월 22일 장남 결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김현기 = 10월 30일 장남 결혼, 창원 리베라호텔 △이재홍 = 10월 9일 차남 결혼, 서울 파티오나인 △조덕준 = 10월 9일 장녀 결혼, 서울 강남플라자웨딩홀

<22회>

△박창섭 = 11월 5일 차남 결혼, 울산 지상웨딩홀 △조동룡 = 9월 24일 딸 결혼, 서울 천주교종로성당 △송기영 = 10월 29일 아들 결혼, 뮤지엄웨딩홀

<23회>

△강실근 = 10월 8일 차남 결혼, 서울 강남웨딩컨벤션 △김기열 = 10월 8일 장녀 결혼, 부산 K웨딩홀 △박동현 = 9월 24일 아들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박수갑 = 10월 2일 장녀 결혼, 해운대그랜드호텔 △백창영 = 10월 23일 딸 결혼, 남천성당 △신상희 = 9월 24일 장남 결혼, 해운대센티호텔 △오기묵 = 10월 16일 차남 결혼, 창원 미래웨딩캐슬 △윤영채 = 11월 6일 장남 종민근 결혼, 서울 곤자가컨벤션 △이병용 = 10월 10일 장모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전명식 = 11월 5일 아들 결혼, 연세대학교 등문회관 △최진수 = 10월 15일 장남 결혼, 서울 사랑의교회 △허주현 = 9월 17일 장남 결혼, 서울 컨벤션디아팡 △홍성표 = 9월 15일 모친상, 서울 강동성심병원 * 동기회 사무실 이전 =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30-1 동삼B/D 402호

<24회>

△강영창 = 10월 29일 장남 결혼, 서울 웨

딩의전당 △김봉용 = 10월 30일 딸 결혼, 임피리얼펠리스호텔 △김장현 = 9월 24일 장녀 결혼, 센텀임페리얼웨딩홀 △서손상 = 10월 1일 차남 결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설광언 = 10월 8일 장남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유광윤 = 10월 29일 아들 결혼, 압구정성당 △이근배 = 9월 6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기원 = 8월 28일 장모상, 부산 영락공원 △이현우 = 10월 9일 장남 결혼, 부산 W웨딩 △임성근 = 10월 30일 아들 결혼, 서울교육문화회관 △장일형 = 10월 7일 장녀 결혼, 명동성당 △조재진 = 9월 27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조정학 = 10월 22일 모친상, 서울 삼성의료원 △차한영 = 10월 21일 모친상, 서울보훈병원 △최창림 = 9월 20일 모친상, 성산현대요양병원 △태창업 = 'MOTEL리베' 개업, 부산시 중구 부평동 1가 41-9, (051)257-8030

<25회>

△김경찬 = 10월 3일 모친상,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자훈 = 10월 9일 장남 결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김대우 = 9월 24일 차녀 결혼, 인천 간석4동성당 △한봉재 = 10월 9일 장녀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 동기회 사무실 이전 =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1908호

<26회>

△고광민 = 8월 25일 모친상, 서울 건국대병원 △김종배 = 9월 3일 장모상, 서울대병원 △박경재 = 10월 22일 장녀 결혼, 서울교육문화회관 △박봉두 = 10월 30일 아들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박상용 = 9월 13일 장모상, 삼성서울병원 △박상호(의사) = 10월 16일 차남 결혼, 서

동창회에 큰 공 세우고 간 정동식 '말형'

故 정동식 동문(1회, 재경동창회 명예회장, 본부동창회 고문)은 우리 동문들의 말형이요 동창회의 큰 어른이었고 든든한 기둥이었다.

그에게는 항상 '초대' 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경남 통영 출신인 그가 경남고의 전신인 '부산 제2중학'에 입학한 것은 일제 치 하였던 1942년 4월. 신입생 120명 중 일본인학생이 80명이었고 한국인학생은 40명이었다. 당시 교사는 전원 일본인들이었다. 이 40명의 한국인학생들은 당시 부산 경남의 20개군에서 뽑혀 온 수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 동문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 '천재'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학생이 전교수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인 교사들은 검도과목에서 그에게 낮은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2등만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일본인 학생들은 모두 떠나자 학교측은 한국학생 32명을 추가 받아들여 1946년 1회 졸업생 72명을 배출하게 된다. 이 때 학생자치회(지금의 학생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정 동문이 초대 회장이었다. 경남중고동창회보 제38부터 제51호까지 연재된 '경고 야

사'에 이 당시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돼 있는데, 정 동문은 당시 최초의 경남고 학생신문인 <보급자리>를 창간했다. '쌍백선 교복'도 이 때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정했다고 한다. 정 동문은 전교수석으로 경남고를 졸업했다.

그는 경남고 재학 시절 야구부에서 포수로 활약했다. 경남고 야구부의 '초대 포수'로 기록돼 있다. 시험 때면 그는 포수

중령으로 예편한다.

군 제대 후 한동안 놀고 지내던 그는 1964년 10월 동기인 김택수 동문의 권유로 재경동창회 초대회장을 맡게 된다. 이 때까지만 해도 재경동창회는 주소록이나 회원명부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면 한번씩 덕수궁 등지에서 모임을 갖는 정도의 활동만 하고 있었다. 초대 재경동창회 회장이 된 정 동문은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또는 '최초'라는 수식어 항상 따라 다녀 재경동창회 초대회장 맡아 동창회 체제 세워... 동창회보도 창간 말년에 재경동창회에 '섭섭'... 기별야구 개막식 참석 못하고 타계

석에서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내외야수들을 이끌었다고 한다.

경남고 졸업 후 그는 고려대 법대로 진학했다가 대학 4학년 때 6·25전쟁이 나자 해병학교를 거쳐(37) 해병장교로 참전했다. 군대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무공을 세워 중무부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그 후에도 군대에 계속 몸담았다가 해병대

동창회의 체제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다. 김경희 동문(9회)을 초대총무로 임명하고 회칙과 회원명부를 만들게 했다.

재경동창회 초대회장으로서 그가 세운 가장 큰 공은 <경남중고동창회보>를 창간한 일이다. 1968년 "동창회보를 만들시다"라는 김경희 총무의 제안을 받아 두말하지 않고 "스타디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당시 언론계에 있던 동문들의 협조

를 얻어 1968년 6월1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기별야구대회도 그가 회장일 때 처음 시작됐다. 제1회 기별야구대회에서 그는 동기 대표선수로 직접 시합에 참가했고 그 후 매년 기별야구대회 때마다 선수로 출전해 안타를 쳤다고 한다.

1972년 재경동창회장에서 물러난 그는 기별야구대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운동장에 나와 후배들을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동창회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축사를 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그만큼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크고 깊었다.

그러나 고인은 말년에는 재경동창회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2008년 2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이후로 재경동창회 집행부가 당시 '잘 나가는' 후배동문들에게만 축사를 시키고 자신을 비롯한 고문들에게는 축사를 시키지 않는 등 소홀히 대하자 동창회에 발을 끌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고인이 주변 동문들의 권유를 받고 "이번 재경기별야구대회 개막식(지난 6월 5일)에는 참석하마"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로 지난 5월 24일 순천향병원에 입원했고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 메모리스웨딩홀 △양희권 = 서울선박금융(주) 사장 취임 △임홍석 = 10월 13일 모친상,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왕효석 = 홈플러스테스코(주) 대표이사·홈플러스(주) 개발건설부문장 △염기영 = 9월 18일 장남 결혼, 서울 JS강남웨딩문화원 △윤진일 = 10월 29일 장남 결혼, 서울 엠플러스컨벤션웨딩 △이종진 = 9월 13일 장인상, 아주대병원 △장만옥 = 10월 22일 장녀 결혼, 서울 아베뉴웨딩홀 △전강석 = 12월 3일 장남 결혼, 호텔리츠칼튼서울 △정거돈 = 10월 8일 장녀 결혼, 서울 밀알학교 △정대균 = 10월 25일 부친상, 서울 강남성모병원 △정인주 = 9월 14일 장모상, 안산 한도병원 △차인식 = 9월 27일 부친상, 창원 파티마병원 △최 현 = 꿈동산유치원 이사, '글로벌키즈하우스어린이집' 개업, 경남 김해시 동상동 346-1, 010-9696-9557

<27회>
△김훈탁 = '상지건축' 부회장 취임 △박천용 = 11월 5일 장남 결혼, 씨사이드웨딩홀 △반정열 = 11월 5일 장녀 결혼식, 부산 W웨딩홀 △서기룡 = 11월 12일 장녀 결혼, 울산 MBC컨벤션 △성병철 = 11월 11일 차남 민재군 결혼, 서울 압구정성당 △안정규 = 10월 23일 모친상, 통영 적십자병원 △차승일 = 10월 20일 장남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최극림 = 9월 20일 모친, 성산현대요양병원 △최영철 = 10월 19일 장인상, 서울 삼성서울병원

<28회>
△구창훈 = 10월 1일 장녀 결혼, 서울 더칭담 △김대식 = 10월 1일 차남 결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 △김용희 = 전 롯데감독, 프로야구 SK와이브스 2군 감독 취임 △김재훈 = 9월 6일 부친상, 서울강남성

모병원 △김치운 = 10월 16일 차남 결혼, 네오스포터스웨딩홀 △김해동 = 행정토건 대표, 사무실 이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1320-4, (051)271-3045 △남택희 = 10월 12일 장모상, 부천성모병원 △노문호 = '한국신에츠실리(주)' 첨단기능제품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F, 010-8729-2612 △방순영 = 9월 16일 장남 결혼, 르네상스서울호텔 △배효진 = 9월 11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이승열 = 10월 15일 장녀 결혼, 서울 PJ호텔 △임상규 = 9월 6일 장인상, 부산성모병원 △장재용 = 8월 30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정점득 = 8월 28일 장인상, 서울대병원 △하대용 = 10월 29일 차녀 결혼, 서울 약현성당

<29회>
△강희철 = 10월 4일 장인상, 삼성서울병원 △김영기 = 10월 1일 장남 결혼, 경남 창원성당 △김태희 = 10월 29일 장남 결혼, 호텔리츠칼튼서울 △김하원 = 10월 1일 장녀 결혼,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예식장 △소덕수 = 10월 9일 장녀 결혼, 부산웨딩홀 △서치홍 = 8월 30일 장모상, 동아대병원 △오덕현 = 9월 14일 장인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최종열 = 부산대교수, 경영대학장 취임

<30회>
△김정욱 = MBC문화방송 예능3국 부국장 겸 기획 제작 1부장 한류 콘텐츠 제작 TF 팀장 △김정홍 = 10월 15일 장남 결혼, 천년부페웨딩홀 인천전 △남영호 = 9월 19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상용 = 감사원 국방 감사단(4급) 2과 △박진수 =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지환 = 9월 16일 장모상, 동래 광혜병원 △서상국 = 10월 1일 장남 결혼, 서울 세검정성당 △신

구균 = 9월 5일 부친상, 마산 MH연세병원 △오세웅 = 'NH투자증권' 부산지점장,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53 부산농협 B/D 4F(부전역앞), (051)818-3666 △유영록 = 9월 26일 부친상, 동의의료원 △이종욱 = 카톨릭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BMT센터장 임명 △임규영 = '장안설링탕' 개업,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28-1 우성프라자, 011-596-5075 △정해도 = 10월 15일 아들 결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허 준 = 9월 24일 장남 결혼, 호원굿플러스웨딩홀

<31회>
△고영호 = 9월 25일 장녀 결혼, 서울 세종문화회관 △김옥운 = 10월 23일 장녀 결혼, 서울 63빌딩 △김윤택 = 8월 30일 모친상, 동의의료원 △김재술 = 9월 28일 장인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남철우 = '법무사 남철우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1101호, (051)505-7778 △류명석 = 9월 28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심재홍 = 반도코리아 상무, 양산 어곡동 △최병철 =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최재호 = 10월 9일 부친상, 삼신장례식장

<32회>
△이성훈 = 10월 14일 신평골프연습장 개업, 011-838-6708

<33회>
△이수강 = 9월 12일 부친상, 보훈병원 △정한승 = 8월 27일 부친상, 서울 고려대구로병원 △한성일 = 9월 23일 모친상, 삼신장례식장

<34회>
△이철수 = 8월 31일 모친상, 뉴질랜드 △정연호 = 9월 21일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35회>
△이남기 = KBS편성센터 편성국 2TV 편성부장 △이명진 = 창원 경남은행 △홍성표 = 9월 18일 부친상, 인창요양병원

<37회>
△조영규 = 10월 16일 장인상, 부산 메리놀병원 △허 결 = 9월 10일 모친상, 수영한서병원

<38회>
△손상용 = 10월 22일 부친상, 장림중앙병원 △이태한 = 수원지검 안산지청 3부장 검사, 9월 1일자로 성남지청 부장검사로 이동

<41회>
△조원주 = 9월 13일 부친상, 인창요양병원

<45회>
△이상재 =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산캠퍼스 교수

<53회>
△이기주 = 10월 9일 결혼, 부산 삼성컨벤션힐

부음
▲김봉진(13회) = 6월 30일 별세, 침례병원 장례식장 ▲권인수(16회) = 10월 24일 별세, 보훈병원 장례식장 ▲김판규(16회) = 전 육군참모총장, 10월 16일 별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장선중(16회) = 10월 17일 별세 ▲이창호(17회) = 10월 15일 별세, 서울 목동성당 ▲최형표(19회) = 10월 5일 별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김지창(23회) = 10월 24일 별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박영언(29회) = 9월 18일 별세,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아, 최동원, 당신은 진정한 영웅... 이제 편히 잠들기를...

본 회보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는 괜찮다"... 왜 거짓말 했나

죽음과 맞서서 배짱 좋게 '아리랑 볼' 을...

지난 8월 17일 본 회보와의 전화인터뷰가 결국 최동원 동문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가 되고 말았다. 당시 수화기 저편에서 최 동문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는 괜찮다. 옛 모습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동문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

'중병설'에 대해 거듭 묻자 그는 "별 일 아니다. 체질을 확 바꾸기 위해 6, 7개월 동안 생야채만 먹었더니 체중이 너무 빠져 다시 살을 찌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태연히 말했다. <본 회보 386호 10면 전화 인터뷰 기사 참조>

그렇던 그가 이 전화인터뷰가 있을 지 채한 달도 안돼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때 그는 이미 24

번이나 항암치료를 받는 등 병이 악화될 대로 돼 있는 상태였다. 지난 7월 2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있었던 경남고-군산상고 레전드 리매치 때에도 그는 복수(腹水)가 차 배가 임신부처럼 볼록한 모습이였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병세를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 왜 그랬을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이 유력하다. 그는 죽음과 맞서는 싸움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 병세를 극구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다. 투수로 한창 잘나가던 시절 마운드에서도 그랬다. 상대가 아무리 홈런타자라도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갔다.

죽음에 맞선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유명

한 '아리랑 볼'을 연상하게 해준다. 롯데 시절, 그는 제일은행과의 시합에서 '아리랑 볼'이라 불리는 초 슬로커브를 던지다 3, 4번 타자인 양세종과 김우열에게 연달아 홈런을 얻어맞았다. 타순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양세종의 타석이 되자 그는 결정구로 또 '아리랑 볼'을 던졌다. 결과는 삼진아웃. 그는 정말 배짱이 두둑했다.

생의 마지막 시합. 마운드에 외롭게 선 그는 병마에게 질 줄 알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죽을 앞에서도 겁먹는 모습을 보이지 싶어했기에 배짱 좋게 '아리랑 볼'을 던진 셈이다. 칠테면 쳐보라며 죽음의 타지를 향해 초 슬로커브인 '아리랑 볼'을 구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홈런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은 지켜냈다.



마지막으로 입은 모교 야구부 유니폼
지난 7월 22일 경남고-군산상고 레전드 리매치 때의 모습. 모교 야구부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선배님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모교 야구부원 18명 대형 걸개사진 펼쳐두고 묵념

롯데 “11번 영구 결번” 선포

‘우리는 선배님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6시 부산 사직구장. 롯데 자이언츠는 이날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지난 14일 타계한 고인을 기리는 '최동원의 날' 추모행사를 가졌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경남고 야구부원 18명이 가로 10m, 세로 7.5m의 대형 걸개 천을 펼쳐 들고 그라운드에 나왔다. 거기에 환하게 웃는 최동원 선수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모교의 후배 야구부선수들은 묵념으로 경남고가 낳은 불세출의 명투수인 선배 최동원을 기렸다. <사진>

이어 고인의 경남고 후배이자 롯데투수인 임경완 동문(48회)은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며 후배들의 표상입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라고 추모사를 읽어 내려가자 관중과 선수들은 침통해 했다.



사직구장 외야펜스 쪽에 게양된 11번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모양의 깃발.

롯데 자이언츠의 장병수 대표이사는 "11번을 영구히 결번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11번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형상의 깃발이 1루 외야펜스 상단에 게양돼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였다. 3루 외야펜스에 설치된 11번 등번호 기념판도 공개됐다.

구본능 동문(21회)의 눈물

“내가 좋아했던 모교 후배 야구선수가...”

지난 9월 1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고 최동원 동문의 빈소를 찾은 구본능 동문(21회, KBO 총재)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취재기자들 앞에 선 구 동문은 "고인은 제가 좋아했던 야구인이자 학교 후배였다. 야구계의 큰 별이 졌다"며 "이제부터라도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유가족에게도 고인의 유품을 좀 모아주십사 부탁했다. 당장 올해 안으로 명예의 전당이 들어설 부지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 순간, 두 눈가에 그렇그렇 맺혔던 눈물이 뺨으로 흘러 내렸다. 그는 연신 "최송하다"며 눈물을 닦았지만 애끓는 슬픔을 쉽게 잊을 수 없듯,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고 최동원 동문의 빈소를 찾은 구본능 동문이 취재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 동문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한 것은 그만큼 야구에 대한 열정과 고인에 대한 애정이 큰 탓이다. 경남중 시절 야구선수였던 구 동문은 경남중고 후배인 고인의 열성팬이었다.



달아도 너무 달았다

고 최동원 동문의 아들 기호 씨가 지난 9월 3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최동원의 날' 행사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그가 공을 던지는 모습이 지난 2004년 고 최 동문이 사직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시구하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 <사진 제공=부산일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선출된 정형근 동문(18회)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변화와 개혁 모색”

정형근 동문(18회, 전 국회의원)이 지난 9월 30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상임의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김진홍 상임의장에 이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지휘탑에 오른 정 동문은 “보수 세력들을 총 규합해 좌파 중복세력들과 맞서서 이 땅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좌파중복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에게 오도돼 있는 보수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 한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체제

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소외계층을 꺼안고 복지를 실현해가는 온정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동문은 “새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다시 시작한다는 ‘제2창업’의 각오로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홍 동문(19회), 부산 MBC TV ‘휴먼다큐 열정’에 소개

이용홍 동문(19회, 본부 동창회 고문)의 건축 설계 일생을 담은 부산 MBC TV의 ‘휴먼다큐 열정’ 1, 2부가 지난 9월 22일과 29일 밤에 방영됐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가인 이 동문이 설계한 부산 경남 일원의 유명 건축물들과 이 동문의 건축철학, 살아온 길 등을 현장답사와 관계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허범도 동문(22회), 자전에세이집 출판기념회

허범도 본부동창회 수석부회장(22회, 부산시 정부부시장)의 자전에세이집 ‘눈이 녹고 바람이 몸을 풀면 봄이 날아 오더라’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 홀에서 열렸다.



송수건 동문(24회), 경성대 11대 총장 선임

송수건 동문(24회)이 경성대 제11대 총장에 선임됐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송 동문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주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미드메리카 침례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박상호 동문(26회),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박상호 동문(26회, 신태양건설 회장)이 지난 10월 4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열린 ‘2011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식에서 ‘아미산전망대’(부산 사하구 다대동)를 시공한

공로로 대상을 받았다.

아미산전망대는 부산 지역 여성건축가 손숙희 건축사(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것으로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저녁 노을, 월새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호용 동문(26회), 한국전기연구원장 선임

김호용 동문(26회)이 지난 9월 7일 한국전기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선임됐다.

김 동문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86년 한국전기연구원에 들어가 전력연구단장, 시험인증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등을 맡았다.

권명보 동문(27회), 돌연 국제신문 사장직 사표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국제신문 사장으로 재선임 됐던 권명보 동문(27회)이 최근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권 동문은 최근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송석구 명예회장(71)에 맞서 알력을 빚어왔다.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강필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송석구 명예회장이 사외이사사와 논설 고문의 임명은 물론 주요 보직 국장에 대한 교체까지 권 사장에 지시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두 사람이 알력을 빚자 국제신문사의 사주인 이정섭(법명 지광) 능인선원 대표가 권 사장과 송 명예회장 모두에게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교사 지낸 안세홍 은사 별세

경남중과 경남고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던 서양화가 녹원 안세홍 은사가 지난 9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72세.

193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국립부산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 경남중, 부산여중과 경남고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47년 전 천성산에 월례산행 간 경남고 산악반



“그 때 우리는 ‘똥구두’에 교모 쓰고 산에 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오거돈 총 동창회장 모습 보여

산행을 하면서도 교모(校帽)를 썼다. 평소 신었던 ‘똥구두’가 바로 등산화였다. 그래도 모두들 노루처럼 날쌔게 산을 올랐고 기백은 하늘을 찌렀다. 공부도 잘했지만 산도 잘 탔다. 과거 경남고 산악반의 ‘산사나이들’이 그랬다.

모교 경남고에 산악반이 생긴 것은 1961년. 전국적으로 산악운동이 붐이 일면

서 각 고교와 대학교에 산악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시기였다. 경남고 산악반은 창단된 이래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매달 월례산행을, 방학 때에는 하계·동계 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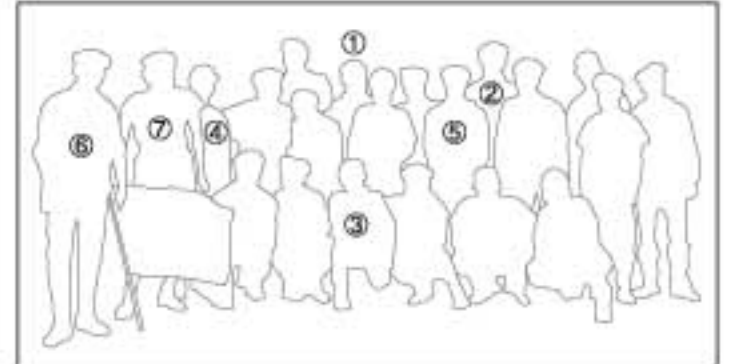
위의 사진은 경남고 산악반이 47년 전인 1964년 7월 월례산행으로 천성산 내원사로 갔을 때 찍은 것이다.

당시 2학년(20회)이 주동이 됐던 이 천성산 산행에는 3학년(19회)이 1명, 2학년(20회) 11명, 1학년(21회) 10명이 참가했다.

셋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흰 모자 쓴 사람)가 당시 2학년으로 산악반 활동에 열심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셋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키가 크고 교모를 쓴 사람)가 당시 1학년이었던 허창수 GS그룹 회장이다.

앞줄(앞은 자세의 왼쪽에서 세 번째가 당시 1학년이던 오거돈 본부동창회 회장(한국 해양대 총장)이고 둘째줄 왼쪽에서 세 번째(빈틈 가려진 사람)가 당시 2학년이던 허중경 방송대 대학원장이다.

〈사진 제공 = 오기현 동문(20회)〉



①양승태(20회, 대법원장) ②허창수(21회, LG그룹 회장) ③오거돈(21회, 본부 동창회장, 해양대 총장) ④허중경(20회, 방송대 대학원장) ⑤박병철(20회, 재미사업가) ⑥석용태(19회, 미국 거주) ⑦오기현 (20회, 구덕산우회)

심성락 동문(1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축하 연주

심성락 동문(10회, 본명 심임섭)이 지난 10월 14일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초청돼 축하연주를 했다.

심 동문은 이날 저녁 7시 20분경 허남식 부산시장의 폐막선언이 있는 직후 무대에 나와 ‘탱고 로즈’ ‘시네마 천국’ 등 두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주로 연주, 큰 박수를 받았다.

그가 연주할 때 무대의 영사막에는 ‘볼우한 환경 속에서 아코디언을 독학으로 익혀 한국에서 아코디언 거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라는 소개자막이 나왔다.

그는 이날 연주가 있기 전 “오래 만에 부산에 와서 연주를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오는 12월 제1회 용마 송년음악제에서 동문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심 동문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축하연주를 하는 모습. 스크린에 연주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외항선 선장에서 프로야구팀 단장까지 '별난 이력'의 송정규 동문(25회)

“어떤 일 하든지 꿈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길 열려”

송정규 동문(25회)은 좀 별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외항선 선장으로 10년간 대양을 누비기도 했던 그는 배에서 내려서는 해기사협회에서 선장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도 했는가 하면 롯데 자이언츠의 단장으로 일약 스카우트돼 1992년 한국시리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지금 그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으로 전국 도선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27살에 외항선 선장 돼 전 세계 누비고 다녀

- 일찍 외항선 선장이 됐다는데.

“그렇다. 경남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응시했다가 실패했다. 서울에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던 중 당시 해양대 교수로 제쳤던 부친의 권유로 해양대 항해과에 들어갔다. 재학 중 해군ROTC를 했다. 졸업 후 3등 항해사로 시작해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거쳐 1980년 선장면허를 따고 바로 미국인이 선주인 3만1,220톤짜리 벌크운반선의 선장이 됐다. 그 때 내 나이가 27살이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드문, 최연소 외항선 선장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그 큰 배를 몰고 호주 미국 유럽 등 안 다닌 데가 없었다. 신났던 시절이었다.”

- 그런데 왜 배에서 내렸나.

“선장을 해보니 몇 년 안 돼 별 재미를 못 느꼈다. 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몇 년 만에 배에서 내렸다.”

- 그리고는 뭘 했다.

“해운회사 부산지점장도 했고 해기사협회에서 선장들과 항해사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송 동문의 경력 중 가장 이색적인 것이 롯데 자이언츠 팀의 단장을 지낸 사실이다.

38살에 롯데자이언트 단장으로 스카우트 돼...

92년 한국시리즈 우승

- 외항선 선장출신이 어떻게 해서 프로야구단 단장이 됐나.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 누군가가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고 말했다. 그 상자에서 무엇이 나올 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내 경우가 그렇다. 우연한 인연으로 그렇게 됐다.”

그가 말하는 ‘우연한 인연’은 그가 쓴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배에서 내린 뒤 출판무역회사를 차렸다. 당시 롯데자이언츠는 부산에서 매년 꼴찌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의 장훈선수 이야기를 부친의 도움으로 일본신문에서 읽기도 했다는 그는 경남고 재학 때에도 야구에 꽤 관심이 많았다. 야구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다. 그런 그가 계속 끝지만 하는 롯데자이언츠에 대해 화가 무척 났다고 했다. 그래서 쓴 책이 <필승전략 롯데자이언츠, Top Secret>라는 단행본이었다. 340페이지짜리의 이 책에서 그는 롯데자이언츠가 이기려면 선수기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명문구단이 되려면 어떤 팀을 짜야 하는지, 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 등 나름대로의 각종 ‘필승 전략’을 꼼꼼하게 기술했다. 이 책은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겨우 2천부 정도 팔렸다.

그러나 책이 나온 얼마 뒤 당시 롯데자이언트의 구단주이던 신준호 동문(14회)이 전화를 걸어왔다. 책 내용 중 주요부분을 신문지크기로 확대해서 두 권만 보내달라고 했다. 요구대로 해주었더니 아마 그것을 신격호 회장에게 보여주고 읽어보게 한 듯 했다. 신준호 구단주가 그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당장 만나자고 해 만났더니 “야구단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송 동문이 거절했더니 또 만나자고 해 같은 부탁을 했다. 두 번 다 거절했더니 이번엔 “차 한잔하자”고 불러내고는 이런저런 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같은 부탁을 또 했다.

“세번째 만남에서 차마 거절 하지 못하고 영겁결에 끌려들어 간 셈인데, 그 때 내 나이가 38살이었다. 아마 프로야구 단장으로는 최연소 기록이 아닌가 한다.”

그는 입단 첫 해인 1991년 가을 롯데자이언츠 팀을 8위에서 4위로, 이듬해인 1992년 대망의 한국시리즈에서 롯데자이언츠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2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를 기록, 롯데자이언츠를 명실 공히 한국 제1의 인기구단으로 만들었다.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한 다음해 그는 롯데자이언츠의 사장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또다시 외항선을 탄다. 송 동문은 2001년부터 도선사(파이롯트)가 돼 부산항에서 약 9년간 파이롯트로 일하다가 2004년 부산항 도선사회 회장을 거쳐 2009년부터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영도구 출마 저울질...

골프에서도 '별난 기록' 세워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글쎄,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꿈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길이 열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정규 동문. 항상 새로움을 찾아 도전하는 용이다.

언론들은 그가 내년 총선에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장도 지냈고 현재 한국해사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어서 해운업계로부터 이익대변을 해달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 뒤늦게 골프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동안 주위에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하면 골프 이야기만 하길래 그게 싫어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 우연히 골프를 배우게 됐고 지난 4월부터 필드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골프에 몰두하는지를 직접 해보고 알게 됐다.”

송 동문은 골프에서도 ‘별난 기록’을 세웠다. 골프를 하기 시작한지 채 두 달이 안된 지난 5월말 인도네시아 발리에 친구들과 함께 골프여행을 갔다가 파5짜리 홀에서 이글을 한 것이다. 30여 미터 남겨두고 어프로치샷을 한 공이 핀 깃대에 맞고는 홀컵에 내려 박혀 들어갔다는 것.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서울근교 불부버드 골프장에서 73타를 치는 기록을 세웠다. 73타는 규정타수에서 1타 오버한 것인데 이런 기록은 구력이 오래된 사람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프로가 아니면 내기 어려운 기록을 구력 1년도 안된 비기너 골퍼가 이뤄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항상 그렇게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쩌다가 그런 기록이 나온 것일 뿐이다. 보통은 90타 정도가 내 실력”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현역프로 올스타선수 및 OB가 펼치는 명승부!



부산시민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생각



라이벌
구대치

경남고 VS 부산고

2011.11.13 일요일 14:00 ~ 18:00

부산 사직구장

모이자!
사직구장으로!

※당일 사직구장 정문에서 동문 및 가족에게 무료입장권 배포

박홍이 동문(17회)의 아름다운 삶

행려병자 시신 염 해주는 '염쟁이' 물리학 교수

박홍이 동문(17회)은 정년퇴임한 명예교수다. 그러나 아직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강의를 한다. 이것도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1년하고 한 학기가 지났다. 정년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배낭을 메고 다닌다는 것이다. 정년퇴임한 이후 책 보파리 같은 집을 보관할 자신의 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터뷰어를 맞은 곳도 감사 대기실이다. 이것이 '나뭇잎이 아니라 낙엽으로 사는' (그의 표현이다) 방식이다. 그 낙엽은 아침마다 참선을 한다. 그가 들고 있는 화두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이런 그를 지금,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빨리 알고 싶은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해 좀 오래된 신문 자료를 인용해본다.

"(그는)81년부터 6년간 강의한 부산대와 지금의 연세대를 거치며 세계적 권위의 과학기술 논문 색인인 SCI에만 240여 편의 논문을 올린 '연구파'다. 그는 '앞으로 SCI 논문 300편은 쓸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눈에 띈다.

"박 교수가 내년 2월 정년퇴임에 앞서 제자들을 강의실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다. 1986년 9월 부임 후 23년 만이다. 박 교수는 재직 기간에 SCI(과학 인용 색인) 등재 논문 340편을 썼다."

앞의 인용은 2002년(58세 때) 것이고, 뒤의 인용은 7년 뒤인 2009년(65세 때) 것이다. 필자는 SCI에 등재되는 논문이 어느 정도의 가치와 권위를 지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이다.

박 동문은 경남고를 졸업, 연세대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가세가 기술자 학업을 포기했다. 방황하던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친구에게 빌린 3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12년 만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고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부산대를 거쳐 연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강의 외에 청년문화연구원장, 연세자원봉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펴낸 책은 <고체물리학> 같은 전공서적도 수두룩하지만 <5분간의 생만 허락된다면 마지막 쓰는 편지>, <30원(물리학자 박홍이가 들려주는 내 영혼의 다이어트)>, <쟁패(물리학자 박홍이의 카툰 아포리즘)> 등의 대중서적과 만화책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그를 주위에서는 '만화 그리는 괴짜 물리학자'나 '희망 전도사'니 하고 부른다.

- 경남고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은사가 있다면.

"이당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수업 시간에 영어 소설을 읽어주었어요. 그 덕에 경남고 때부터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과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영어 소설을 읽기 시작했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문장은 수첩에 옮겨 놓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보였다)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수업 중에 했던 말들이 내 영어 실력을 모국어 수준으로 향상시켰지요. 선생님은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남고에는 박 교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췌고 췌다'. 이당만 선생이 박 교수에게만 특별과외를 한 것도 아니다. 그가 수업 중에 했다는 말도 옮겨 적다 보니 '영어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해라', '공짜는 없다' 같은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려운 좀 '편한' 가르침들 뿐이다.

이당만 선생이 박 동문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이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릴 적부터 마당을 쓸게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용돈을 주었다. 그렇게 모은 돈의 10%를 그는 고아원에 가져다주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의당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 분을 보인 이는 아버지다.

이렇게 자란 '착한 아들'은 강의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봉사와 나눔의 현장을 찾아

박 동문이 자신이 펴낸 만화책에 '30원'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삶과 죽음은 틀이 아니며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만화책에는 종교적 고전적 지혜가 짙게 깔린 48개의 잠언이 등장한다.

그는 1997~99년 물리학회지에 '쟁패'라는 제목으로 4컷짜리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다. '쟁패'는 '쟁판을 쳐서 판을 새로 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고 영어로는 선각자(Prophet)로 번역했다.



박홍이 동문. 그는 "은퇴 후 나뭇잎이 아닌 낙엽으로 사는 방식을 익히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 김형윤 동문(18회)>

"1970년대 초 미국 유학 시절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슬립가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때 가난한 음악가들이 동네 불량청소년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어요. 기타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나도 언젠가 꼭 저런 일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이런 그의 바람에서 시작한 아코디언 공부는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다. 아직 누굴 가르칠 정도의 실력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린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인터뷰 중에 수시로 엄청난 공력이 느껴지는 화두를 남발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봉사란? "자신이 가진 제일 중요한 것을 내놓는 것", 물리학이란?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것", 죽음이란? "KBS를 보다가 MBC를 보는 것. 다시 말해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 등이다.

그는 5년 전 췌장암 통보를 받았다. 그때 그는 남은 가족들과 제자들 생각으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또 치료도 거부했다. 단지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버텼다고 한다. 다행히 병세는 악화되지 않았고 그 덕에 그는 지금 못다 했던 봉사 활동을 마음껏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다.

그는 은퇴 후의 나누는 삶을 '100m 경주'에 비유했다. "사람이 100m 경주를 하는데 98m에서 천천히 가는 거 봤나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가 될 때까지 나누고 또 나눠야죠."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은 많으나 정작 사람 같은 사람은 드문 세상이다. 그를 만나고 나오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간다운 인간을 오랜만에 만나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창기 객원 편집위원(시인)>

SCI 등재 논문 340편 쓴 '학구파 교수'로 유명 매일 아침에 참선... 화두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만화책도 여러 권 펴내... '만화 그리는 괴짜 물리학자' "죽음은 KBS를 보다가 MBC를 보는 것과 같다" 5년 전 췌장암... 치료 거부하며 스스로 버텨 내 건강 회복 자신보다 남 위해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돼야

다녔고 심지어 염하는 법까지 배워 교수의 신분으로 4년 남짓 '염쟁이' 노릇까지 했다.

- 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만화 <30원>에서 "죽음이란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재가불자협회에서 염을 배웠습니다. 이 모님 들어가셨을 때도 내가 염을 했고, 대학 병원에 온 행려병자 시신은 염을 해줄 사람이 없다가에 내가 도맡아 염을 해주었습니다. 염을 해보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신을 두고 묵고 웃을 입힌 다음 저승가는 노자를 가슴에 물어주는데, 10원짜리 하나 넣고 천냥이요, 또 하나 넣고 이천냥이요, 또 하나 넣고 삼천냥이요, 합니다. 결국 30원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지도자란 희망을 주는 사람이지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상이 있겠지만 나는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엘지아 부피에를 진정한 지도자로 봅니다. 부피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의 나무 심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는 요즘 만나는 이들에게 극기학교와 음악학교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다. 극기학교는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을 그만의 수련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구상한 학교이고, 음악학교는 그만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따로 있다.

恩師列傳 ⑦ / 서정순 선생님

나에게 가난 딛고 일어설 힘을 준 '과거'를 가진 선생님



정형근

(18회,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전 국회의원)

가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그 시절

나는 경남고를 17회로 입학했으나 3학년 때 졸업을 두 달 째 앞두고는 휴학을 해야 했다. 집안형편이 워낙 어려워 학교에 월사금을 제 때 내지 못하던 차에 덜컥 낙락염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집에서 쉬며 가정교사도 하며 건강을 돌보다가 어찌어찌해서 1년 뒤 복학해 18회로 졸업하게 됐다.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은 과거로 치달는다더니 요즘 내가 그렇다. 구덕산 자락에서 청운의 꿈을 키웠던 그 때가 가끔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모교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다. 나이 들거나 삶에 지치고 외롭고 고달파지면 생각이 나고 돌아가고 싶어지는 곳이 고향이다. 뒤 돌아보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난날에 대한 기억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은사열전 원고청탁을 받고는 얼른 생각나는 분이 있었다. 상업 과목을 가르치신 서정순 선생님이다. 그 분은 내가 복학한 후 우리 반(3학년 6반) 담임이셨다. 당시 경남고에는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유독 서정순 선생님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선생님에게 따라다니던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이라.

경남고에 사무직으로 들어왔다가 교사로 특채돼

담임으로 만난 선생님에 대한 첫 인상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순박한 시골 농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수줍음을 타는 동네 아저씨 같기도 했다. 통상 일류고등학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하고 날렵하고 지성미 가득한 선생님의 이미지나 외모와는 영 딴판인 분이였다. 더구나 가르치시는 과목이 그 잘난 영어나 수학도 아닌 '상업'이 아닌가. 우리들은 처음엔 선생님을 좀 시시하게 봤다.

그러나 곧 선생님의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듣고는 새삼 선생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당초 경남고에 말단 사무직으로 들어왔다가 교사로 특채된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다. 낮에는 교무실에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서 밤에는 동아대 야간부를 다니는 등 말 그대로 주야특경의 노력 끝에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우리 학교 교사로 특채돼 상업과목을 가르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처음으로 3학년 6반 담임까지 맡은 것이다.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난이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뼈저리게 겪고 있었던 나였기에 역경을 딛고 교단에까지 서게 된 선생님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급우들에 비해 더욱 더 크게 다가 왔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선생님이 과거에 뒷골목에서 이름을 날린 '주먹'이었다는 소문이었다. 거기다가 선생님의 오른손 어퍼컷 한방이나 원발돌려차기 한방이면 아무리 거구의 싸움꾼이라도 간단히 꼬꾸라질 만큼 주먹이 세다는 이야기까지 더 보태졌다. 이 이야기는 주경야독으로 교사의 꿈을 이룬 이야기보다 어린 우리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것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원형교사 교실 밖 베란다에 모여서 선생님의 '오른손 어퍼컷' 이야기를 속닥거리며 괜히 허공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 보기도 했고 수업 중에는 백목을 쥔 선생님의 손에 자꾸만

눈길이 가곤 했다. 하여튼 우리들은 서정순 선생님을 둘러싼 이런 이야기에 요즘 애들말로 그만 '감동을 먹고' 말았다. 그리고 그 감동은 곧 존경심으로 변했다.

'개백따구'와 '찰튼 헤스틴'

그 시절 경남고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두 분 계셨다. 한 분은 별명이 '개백따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였던 정규혁 체육선생님이다. 어느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당시 전국적으로 명문고로 이름났던 경남고에도 꺾릴만한 애들이 있었다. 멧을 부린다며 괜히 모자를 반쯤 찢거나 모자챙을 반으로 꺾어 쓰고 다니거나 졸대 바지를 입고 다니며 어깨를 으쓱 거린 '어깨들' 말이다. 그런 '어깨들'은 물론이지만 평범한 애들에게 까지도 '개백따구' 선생님은 저승사자로 통했다. 좀 까무잡잡한 얼굴에 몸이 호리호리하고 날쌔던 '개백따구'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망원경을 손에 들고 원형교사 옥상으로 올라가셨다. '개백따구' 선생님은 거기서 마치 적진지를 정탐하듯 망원경으로 뒷산 쪽을 훑어보시다가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 벼락같이 한결음에 뒷산 쪽으로 내달았는데 그 속도가 거의 '마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 수준이었다. 그러면 어느새 '개백따구가 떴다!'는 '경고 사이렌'이 뒷산으로 전달됐고 이에 뒷산에서 담배연기에 취해있던 애들은 후다다다 튀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교사로써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다. 누구보다 제자와 경남고를 진정으로 사랑한, 속마음이 깊고 고운 분이였다.

또 다른 한분은 교련을 맡은 강학철 선생님이다. 강 선생님은 영화 '벤희'의 주인공 '찰튼 헤스틴'을 많이 닮은, 근육질의 쪽 빠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 '찰튼 헤스틴' 선생님은 일년에 한번, 가장 추운 날을 골라 대입시험을 앞 둔 3학년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이벤트를 연례행사로 한다는 것을 일찍이 선배들로부터 듣고 있었다. 마침내 어느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날 아침, 불시에 3학년 전원에게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려졌다. 그날따라 영하15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엄습한 날이었다. 구덕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찬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휘몰아쳐 내려와 먼지 풀풀이는 경남고 운동장에 이르면 시베리아 바람이 무색해질 정도가 된다. 그날도 '구덕골 시베리아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거의 영하20도 정도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땀땀 뿜면서 온 몸을 웅크린 채 불평을 쏟아내면서 운동장에 나갔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시베리아 칼바람 속에서 '찰튼 헤스틴'이 태연히 웃통을 벗어 제친 알몸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면서 만면에 로마의 개신장군같이 미소를 띠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에 우리들은 혀를 내

들었다. '찰튼 헤스틴'은 우리들에게 모두 웃통을 벗게 했다. "제군들, 겨우 이 정도의 날씨를 춥다고 해서야 어찌 경고인이며 싸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겁을 주고는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구령을 외치며 교련체조를 한 30분가량 시켰다.

'땃찌 플레이' 하면 누가 이기나... 갑론을박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는 "찰튼 헤스틴이 유도 8단에 태권도도 5단"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소문은 "찰튼 헤스틴과 뒷골목 주먹출신인 서정순 선생님이 '땃찌(터치) 플레이'를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엉뚱한 상상으로 발전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나 당시로서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꽤 심각하고 흥미진진한 문제였다. 우리들은 한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티격태격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양쪽으로 편이 딱 갈렸다. 한쪽에서 "유도 8단에 태권도 5단이 어디 길에서 주운 것이겠느냐, 그 추운 날씨에 웃통 벗고 알몸으로 있는 걸 못 봤느냐"며 '찰튼 헤스틴'의 승리를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서정순 선생님이 절대 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한판 붙으면 그 살인주먹 한방에 안 나가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이 '가상 땃찌 플레이'를 둘러싼 논쟁은 뜻밖에도 '서정순 선생님이 이긴다'에 다수의견이 모아지면서 잠잠해졌다. 서 선생님의 '뒷골목 과거'에 얽힌 다소 과장된 스토리와 역경을 이겨낸 선생님의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우리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은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여튼 서정순 선생님은 오른손 어퍼컷 한방 날리지 않고도 '찰튼 헤스틴' 선생님을 이긴 것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선생님의 입지전적인 삶이 나에게 힘이 됐다

서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면 내공이 깊었던 분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촌스럽고 부끄러움을 타는 듯 하는 분이었지만 과묵한 성품에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가끔 얼굴을 찡그리시면 우리들을 '찡찡'하게 만드는 위엄이 있었다. 그러나 엄한 표정 뒤에는 항상 온화함이 묻어났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혈육같이 깊은 정으로 대하고 가르치셨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경험 등을 들려주며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야말로 그 때 이미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신 것이었다.

선생님이 내세울만한 명문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분도 아니며 더구나 맡아 가르치신 과목도 '상업'이라는 비인기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서정순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다.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진정성'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고 꾸중하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힘들게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녀야 했던 나는 담임이었던 서정순 선생님에게서 사랑, 꿈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참다운 뜻을 배웠다. 비록 가난해도 노력하면 뜻을 펼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서정순 선생님이 온 몸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서정순 선생님. 18회의 졸업앨범에 실려 있는 사진이다.

투고, 제보 받습니다

경남중고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회보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연락처를 기재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고.

경남중고 동창회보 편집실

팩스 051)245-7550 / ☎ 051)245-7551~3 / E-메일 yongmanews@gmail.com

경고 합창반, '부산 꼴찌' 에서 '전국 우승' 하기 까지



그때그 시절 이야기

추영재 (12회, 동아대 명예교수)

내가 경남고에 입학(1955년)했을 때 모교는 명문고의 위상을 확고하게 굳혀가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경남고는 전국 고교 평가의 절대기준이었던 서울대 입시에서 경기고와 서울고를 제외하고는 한강이남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130명 합격)를 냈다. 이런 놀라운 성과로 경남고 하면 일류 명문고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심어주었던 것이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도 연전연승으로 황금사자기와 청룡기를 휩쓸어 경남고 하면 '야구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의례 따라 붙었다.

그 뿐인가. 예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문예반이었던 장승재 동기가 경남 백일장(부산과 경남이 분리되기 이전)에서 장원을 했고 서예반의 표현오, 김준기 동기가 개천예술제(우리나라 지역문화축제의 효시)에서 특선을 해 각기 경남고의 이름을 빛냈다.

다만 내가 속한 음악반은 그렇지 못했다. 경남중 때 음악반에서 활동했던 나는 경남고에 진학하자 바로 음악반(명칭은 음악반이나 사실은 합창반이었다)에 들어갔다. 그 당시 전국 고교합창콩쿨대회가 있었는데 남성여고가 전국 콩쿨에서 우승하였고 부산여고, 경남여고, 동래여고, 부산고교가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지방대회에서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우리 경남고는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부산대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우리 음악반원들로서는 큰 불만이었다.

2학년이 되던 해에 나는 음악반의 몇몇 동기들과 함께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음악반 반장인 이경정 군(작고)과 반원인 강인준(안동병원장, 작고), 조영식(전 영락교회 반주자), 정해문(전 서울대교수), 정영철(전 남성여고 음악교사), 구창석(작고) 황봉은, 서상현(전 국방연구원), 변재용(전 부산일보사 주간)등 동기들과 의논한 끝에 부산지역 고교합창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노의 걸작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의 합창'을 선택곡으로 정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의 애국심, 가족과 연인을 그리는 애뜻함이 비장하게 표현된 남성 합창곡이다. 타고를 의식한 선택이어서 우리의 형편으로는 다소 힘겨운 대곡이었다. 중순한 저음과 청아한 고음들을 제대로 어우르고, 거기에서 약강세의 장단을 제대로만 지켜내면 우렁차고도 환상적인 화음이 조성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 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었다.

드디어 잠마침로 접어든 여름 어느 날, 그렇게도 답답하던 연습기간이 지나고 불안한 결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기실에서 우리의 발표 차례를 기다리며 타고의 합

창반들이 뽑아내는 합창을 듣고는 그만 우리는 지레 움츠려 들었다. 더욱이 이상근 선생님(후일 부산사대 음악과 교수로 지냄)에 의해 잘 조련된 부산고 합창반의 화음은 대단했다.

결과는 뻔했다. 하필이면 우리와 여러모로 경쟁 상대인 부산고가 그 쟁쟁한 여자교들을 제치고 우승을 할 게 뻔? 우리 경남고의 성적은 물론 최하위, '꼴찌'였다. 당연한 결과를 두고도 우리들은 억울했고 분했다. 특히 합창반의 주축이었던 우리 동기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고, 자부심으로 치자면 하늘을 찌르던 우리들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수모였다. 변명 같고 비겁한 것 같았지만 '희생양'이 필요했던 우리들은 '꼴찌'를 하고만 것을 음악반 지도교사인 P선생님의 탓으로 돌렸다. P선생님은 얼굴의 턱이 작아 '무턱'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우리들은 '무턱을 바꿔야 한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들이 P선생님을 배척하기로 한 계기는 합창대회에서 꼴찌를 한 것 말고도 또 다른 사유가 있었다. 그것은 '교가 개작(改作) 사건'이었다. 알다시피 경남고 교가는 초대

잘 알려진 대로 경남고 교가는 장중한 장조와 우아한 단조가 잘 어울려진, 중순하고도 미려한 선율로 이미 선배님들과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신성불가침의 노래다. 이런 '명작 중의 명작'인 경남고 교가를 P선생님은 "교가의 끝 부분이 작곡이론상 마침법의 화성진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경남-고교-'(솔파-미도-)를 '경남-고등-학-교'(솔파-솔라-시레도-)로 세 음을 추가하고 가사 역시 늘리는 식으로 개작, 음악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군더더기의 너털스런 선율로 바뀌고 가사까지 이에 맞추느라 몇 마디 늘린 이 조잡하고 유치한 새 교가에 학생들은 불만이 쌓여갔다. 그런데도 P선생님은 음악시간을 통해 새 교가를 연습시키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지 급기야 전교생을 운동장에 소집해놓고 새 교가를 연습시키기 까지 했다.

이에 분노한 우리들은 음악반장 이경정 동기를 교장실로 보내 우리의 울분과 불만을 호소하고 P선생님의 교체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를 파악한 추월영 교장선생

쉬는 시간이었다. 김종일 선생님께서 당시의 한국인 표준으로는 조금은 과체중인 몸매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교정에 들어서고 계셨다. 선생님은 정식으로 부임하자마자 지체 없이 음악반을 소집했다. "다음 전국 콩쿨에서 우승하게 해주마." 인사말이 생략된 선생님의 약속이었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이 선정되고 곧 연습에 들어갔다.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테너이시면서도 베이스 가수들이 갖는 중순한 저음을 지니셨고, 바늘 끝처럼 정확한 음정과 리듬감의 소유자였다.

미성창법인 '벨 칸토'는 물론이고 고음처리법인 '팔세토'도 단번에 쉽게 가르쳐 주시는 마법을 지니고 계셨다. 신기하게도 합창반원들의 소리는 삼시간에 선생님의 음색을 닮아갔다. 선생님의 지도는 '마술'이었다. 어느새 아셨는지 발군의 조영식 동기를 찾아내 피아노 반주자로 연습에 동참시켰다. 우리들은 조영식 동기가 그렇게 대단한 피아니스트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은 부임하신지 3개월이 채 못되던 그해 크리스마스 무렵 '제1회 경고 음악 발표회'를 열어 주셨다. 지금도 감히 생각하건데 한국 최고 수준의 연주회였다고 기억된다. 물론 경남고 합창반은 선생님의 약속대로 그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전국 합창대회에서 꿈같은 우승을 차지했다. 전년도에 '꼴찌'를 했던 경남고가 단번에 '전국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뤄낸 것이다.

김종일 선생님은 그 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로 발탁되어 상경할 때까지 경남고 음악반을 맡아서 지도했고 그 덕에 우리 경남고 합창반은 전국 합창콩쿨대회에서 연승을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고 음악반은 황철(에그린악단 창단단원), 정광(영남대 음대 교수), 강원경(동아대 음대 교수)등 전문 성악가들을 배출했다. 그 즈음의 우리 동문들이 하나같이 아마추어 명가수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김 선생님의 탁월하신 지도 덕분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생님께서는 '교육의 성과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고 책임이다. 그 실패 또한 지도자의 몫이자 책임이며 그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일찍이 체득하게 해주셨다. 필자가 대신중학과 경남여중에서 음악교사를 할 때 두 남녀 합창반을 모두 부산 중등 음악콩쿨에서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일 선생님에게서 체득한 경험에 힘입은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고교평준화 이후 추락을 거듭해오고 있는 우리 모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종일 선생님 같은 능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해본다.

'병사의 합창' 들고 나갔다가 부산지역에선서 꼴찌 교가 개작한 합창반 지도교사 탓으로 돌려 남성여고에서 김종일선생님 모셔와 합창 맹연습 '꼴찌'한 다음해 전국대회에서 우승... 기염

안용백 교장선생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던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작사했고 경남고 초대 음악선생님이었던 오명룡 선생님이 작

남께서도 우리들 못지않게 비분강개하시며 P선생님을 소개해준 부산고의 이상근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대노하신 뒤 우리



'경고 제1회 음악발표회' 때의 사진. 검은 색 교복차림의 합창반원들이 김종일 선생님(가운데 뒷 모습)의 지휘에 따라 합창하는 모습.

곡했다. 작사자인 가람 선생님은 "많은 곡에 작사를 했지만 경남고 교가를 작사할 때 '날랜 용마', '지혜로운 고래', '찬란한 옥' 등과 같은 절묘한 은유들이 쉽게도 떠올라 신명나게 작사했다"고 술회한 바 있고, 작곡을 한 오 선생님도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들에게 새 음악선생을 추천해보라고 했다. 우리들이 추천하는 분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모셔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단 그분이 국내에 계신 분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얼마나 결의에 찬 답변이신가! 우리는 큰 기대 없이, 그저 해보는 말로, 당시 전국 합창콩쿨에서 단골로 우승을 한 남성여고의 김종일 선생님을 추천했다. 김종일 선생님이 누구인가? '전국 합창콩쿨의 단골 우승팀의 지휘자'란 부동의 타이틀 외에도 선생님은 월남하기 전 평양방송 남성사중창단을 이끄시던 미성의 테너였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안학교 교장으로 '인생 제2막' 시작한 조경래 동문(19회)

어린 학생들과 '지지고 볶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나이는 반드시 세월만큼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또 '남자는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나이를 먹고, 여자는 그 외모만큼 나이를 먹는다'는 말도 있다. 조경래 동문(19회)을 보며 생각난 말이다.

그는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대안학교인 '앤 탐슨 아카데미(ATA)'의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이를 잊고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숙형 사립학교인 이 학교에서 그의 일과는 아침 일찍 학생들과 함께 시작돼 저녁 늦은 시간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어야 끝난다. 하루 종일 어린 중고생들과 '지지고 볶는' 생활이다.

이런 땀뻑한 생활을 60대 중반인 그가 힘든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미소를 잃지 않는 편안한 그의 얼굴은 "지금 이 생활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다. 애들에게서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한다.

조 동문은 어찌보면 먼 길을 돌고 돌아 교장자리에 앉았다. 경남고 때 그의 꿈은 학교선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어 선생이 되기 위해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졸업하면서 그는 교직 대신에 대기업인 LG그룹에 입사했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그는 집안사정상 교직보다는 당장 돈 벌이가 관건은 직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LG카드에서 고위직 임원을 거쳐 미래신용정보라는 LG그룹 방계회사의 사장으로 5년을 일한 뒤 지난 2006년에 은퇴했다.

은퇴한 후 한동안 놀기만 했다. 여행을 다니고 골프도 열심히 쳤다. 그의 골프 실력은 70대 후반을 치는 싱글 핸디캡. 이렇게 몇 년 계속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어느 때 쯤 "아, 놀기도 지겹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 건가?"라는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앤 탐슨 아카데미'의 설립자로부터 "학교를 맡아서 경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5월 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러니까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에 뒤늦게 자신의 전공인 교직에 복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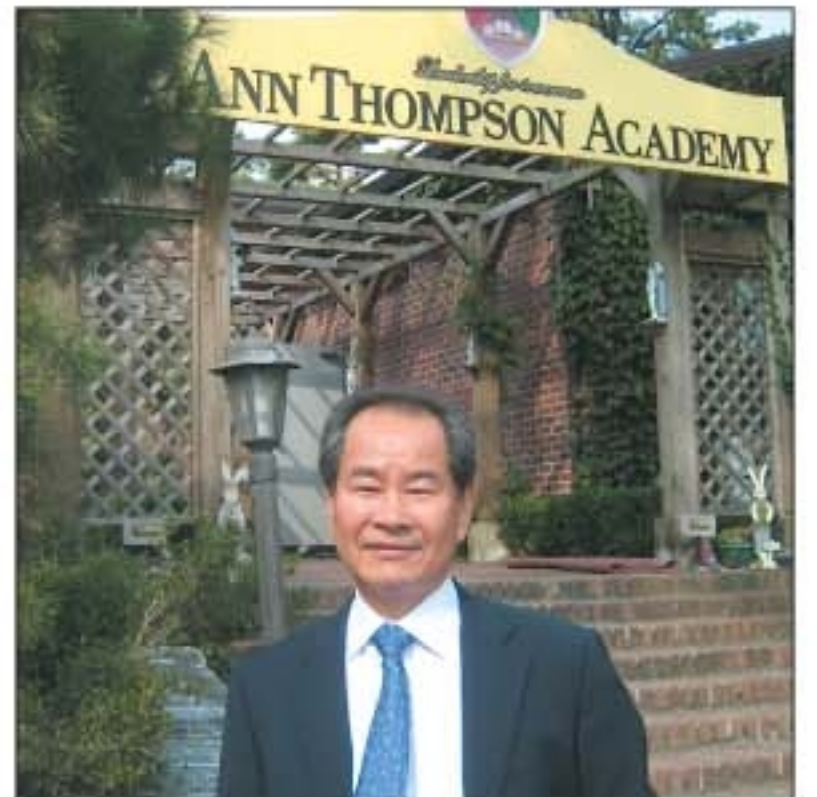
그는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게 아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아들 딸 다 잘 키워냈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지, 그러니 하고 싶었던 학교경영에 소신대로 매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앤 탐슨 아카데미'는 미국식 학제로 7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친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이 운영하는 '인디펜던트 하이스쿨'의 졸업장이 주어지며 미국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원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영동고속도로의 덕평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이 학교는 무엇보다 캠퍼스가 조용하고 아름답다. 8천평의 풍광이 좋은 숲 속에 교실들과 강당, 특별활동실, 카페, 기숙사 등 건축물들이 잘 배치돼 있어 마치 외국의 잘 꾸며진 대학캠퍼스를 보는 듯하다. 특히 새로 지은 기숙사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교한지 1년 밖에 안 돼 현재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하나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서 19명. 이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의 원어민 교사가 9명이다. 이 학교에는 국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오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귀국해서 틀에 박힌 국내 정규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커리큘럼은 좀 특이하다. 교과수업과 인성(人性)수업이 반반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영어강의가 기본이고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따로 있어 중국어도 가르친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주 교재다. 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전에는 교실수업 중심의 국제교육을, 오후에는 신문만들기, 사진, 승마 수영 오케스트라활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



앤 탐슨 아카데미의 교무동 앞에 선 조경래 동문. 60대중반에야 교장이 돼 젊었을 때 품었던 '교직의 꿈'을 이뤘다.

서울대 사대 졸업... 교직 대신 대기업에서 평생 일해 은퇴 후 '신나게' 놀다가 60대 중반에 '교직의 꿈' 이뤄 숲 속의 캠퍼스... 최신시설 갖춘 미국식 사립학교 미국대학 진학 위한 영어수업과 인성교육에 치중

한 인성교육을 한다. 학교생활을 학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규율을 정해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태권도 교편을 두고 매일 아침 6시면 전원이 태권도 훈련을 하는 것도 특징으로 12학년까지 마 치면 누구나 최소 태권도 2단 이상의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학교 측의 목표라고 한다. 여러모로 미국의 고급 사립학교를 닮았다.



앤 탐슨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표정들이 밝았다. 사진 한장 찍자고 하자 스스로없이 조경래 교장을 둘러싸고 포즈를 취해 주었다. - 학교크기나 시설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적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

다.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학비는? "한 학기에 1,150만원. 1년에 2,300만원이다" - 학부모들의 부담이 클 것 같다. "숙식제공에 거의 일대일로 이뤄지는 수업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감안하면 절대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는가. "그렇다. 2주일에 한번 집에 가게 한다." 조 동문 자신도 주중에는 학교숙소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간다고 했다. 그런 생활이 귀양살이처럼 힘들지는 않느냐고 했더니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으나 남모르는 재미가 있다. 무슨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나이에 아무나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학생 수가 적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학생이 1백명을 넘으면 학교경영이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내 다시 동기들과 어울려 골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앤 탐슨 아카데미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2리 532-16 / 대표전화 031-633-2020 <김차웅(19회)>

21회 경발위 기금 납부 내역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위:만원)

강삼태 50	강수경 300	강순석 30	강영도 100	강창수 1,000	공기화 100	김길중 30	김동우 100	김부곤 30	김상덕 50
김영주 30	김일곤 30	김진경 30	김한규 100	김황세 100	마상준 20	민한식 50	배영일 100	변성인 100	서덕수 200
성정근 30	손원조 30	송원경 100	송태형 100	안채식 100	오거돈 1,000	옥동조 30	윤대희 100	윤승근 100	여환부 500
육화원 30	이순희 30	이영상 20	이익규 50	이재택 30	이재홍 100	임경범 100	장 호 300	전우성 500	정익주 100
조병규 30	최경용 30	최수명 100	최원종 500	최재봉 100	최현두 300	한인환 30	허영도 100	한대운 100	황영실 100

부산은행 086-01-024607-0 경발위 이일회
아직 미납 동기분들은 빠른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 禿筆雜記 /

골프 잘 치는 비결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 무슨 비결은 없을까. 프로골퍼든 아마추어 골퍼든 골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한다. '골프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다. 골프가 마음 먹는 대로 잘 안되니 골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골프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야기다.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퍼트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 톰 왓슨(미국)은 그 해답으로 '3D'를 내놓았다. 미국 스텐포드대 심리학자를 졸업한 그가 내놓은 3D는 Desire(욕망이 커야 한다), Dedication(은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Decision(결단성이 있어야 한다)이다.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3C'를 골프의 비결로 제시했다. Confidence(자신감), Concentration(집중력), Control(컨트롤)이다. '3D'든 '3C'든 다 그럴 듯하게 들리나 문제는 필드에서 이 비결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 잘 치겠다는 욕망은 항상 넘치고도 남으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고 전심전력을 쏟는데도 소홀하기가 일쑤다.

어떤 편 자심감이 넘쳐서 태도 아니게 욕심을 내거나 자기조절이 안 돼 번번이 집중력을 놓치고 만다.

그래서 어쩌면 '잘 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흔히 '힘을 빼고 쳐라' 고들 하는데, 힘을 빼라는 말은 육체적인 동작(스윙)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욕심을 버려라'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싱글 핸디캡퍼 아마추어 골퍼로 미국에서 꽤 이름난 골프기자인 제임스 도슨은 <마지막 라운드>라는 책에서 '골프는 웃기 위한 게임'이라고 한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명언을 들려준다. 자신이나 상대의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며 즐기는 게임이지 심각하게 할 운동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골프는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는가를 겨루는 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골프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너그러워야 하는 게임'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마음이 집으로 골프를 한다면 훨씬 더 즐거운 라운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바우>

九德골 카메라 산책 - 고래像



玄海를 달리는 고래... '우리는 慶高人' 새겨

모교 원형교사와 2학년 교실 사이의 잔디밭에 서 있는 '고래상'은 17회 동창회가 1983년 4월 16일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중진조각가 김청정씨의 작품인 이 청동 고래상은 파도가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 그 위로 힘차게 솟구치는 씩씩한 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희끗희끗 녹이 핀 고래상은 흰 조가비가 붙어있는, 살아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이 고래조각상의 화강암 받침대에는 '우리는 경고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구덕의 기슭에서 세계속에 웅비할 면학의 전당을 스스로 창조하는 경고인이다. 국내외 곳곳에서 용마경고를 심어가며 만세 경고를 소리높이는 선배들처럼 용마의 용지를 활짝펴 우리의 가능성을 마음껏 신장시키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다>

명문고를 졸업했다는 우리 동문들의 드높은 자존심과 함께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세운 빛나는 전통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당부가 담긴 글이다. 후배들이 이 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었으면 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만년에 나치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감단에서 쫓겨나자 한창 때 주저(主著) <존재와 시간>을 착상하고 저술했던 남부독일 토트나우베르크의 숲속 오두막에 은거했다. 거기서 그는 실존적 존재에 관한 사색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시론(詩論)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고 존재의 시원(始原)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이 찾아야 할 길을 모색했다. 존재는 사유와 시인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비밀을 전한다. 따라서 언어는 존재가 거쳐하는 집이며, 사유하는 사람과 시를 짓는 사람은 존재를 영접하고 존재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는 이를 두고 '생각하기'(Denken)와 '시 짓기'(Dichten)의 대화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론을 예증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선택한 시인이 프리드리히 뢰를린이고,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저서가 1950년에 발간된 <뢰를린 시의 해명>과 <숲길>Holzwege이다. 저명한 하이데거 연구자인 소광희 선생은 역시 <시와 철학>에서 Holzwege를 '두땀길'이라 옮겼는데 대학 2학년 때 선생의 강의를 들으며 참 멋들어진 번역이라 감탄했던 기억이 새롭다.

<숲길>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포도의 신은 포도 나무와 그 열매 속에 하늘과 대지의 본질적 해후를 보존한다."는 구절이다. "포도 열매는 인간과 신들의 결혼의

주님을 찬양하세

김성언의 人文산책

축제 장소"라고도 했다. 철학자답게 무척 알쏭달쏭한 형이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가을날 짙은 보랏빛으로 잘 익은 동그란 포도열매 한 알 한 알마다에 비치는 푸른 하늘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다. 찬란한 하늘의 태양과 풍요로운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 이뤄낸 결실이 포도라는 말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땅의 H2O를 흡수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포도당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술은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자 축복이다.

또 이 철학자는 "신을 잃어버린 자들이 겪는 '세상의 밤'의 어둠 가운데로 잃어버린 신의 흔적을 가져다주는 것은 주신(酒神) 디오니소스"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독일 낭만주의의 전설적 시인이자 인생의 대부분을 광인으로 보낸 뢰를린의 시 '고향'을 논하면서 "이 가난한 시대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하고 자문한다. 그리고 이어 "시인은 주신(酒神)을 찬양하며 주신(酒神)의 흔적을 길

내는 사람"이라고 자답한다. 존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전개한 매우 골치 아픈 철학적 이론이지만, 한국의 주당(酒黨)들이 씨막기에 또한 매우 유용한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오늘날도 어느 좁은 골목 목로주점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주님의 흔적을 길 내기 위해 "위하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술꾼이었다는 기록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이데거에 앞서 포도가 하늘과 땅의 본질적 결합이라고 진작에 갈파한 사람이 한국에 살았다. 그가 바로 이육사다. 그가 시 '청포도'에서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고 읊은 구절은 포도가 하늘과 땅의 결합의 산물이라는 견해와 동일한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하늘과 땅 외에도 인간의 전설까지 포도송이에 결합시켰다. 천문과 지문에다 인문까지 어우러진 한바탕 신의 축제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우리의 손님이 누굴까. 바그너처럼 하이데거는 황혼의 주신(酒神)이라고 말할 테고,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은 해방된 조국이라고 가르치시겠지만, 육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거 다 맞소"라고 말할지 모른다. <김성언(24회, 동아대 교수, 한국고전문학)>

龍建會는 건설관련 학계·관계·업계 종사자의 동문모임으로

향후발전을 위하여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용건회 역대 회장 -

- 윤진석 (1회)
- 박봉흠 (11회)
- 장상진 (16회)
- 류종우 (18회)

회장 원동희 (24회) 010-3586-6246

총무 이영학 (26회) 011-592-2337

PS :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은 본회로 알려주십시오.

꽃 이야기 / 국화

찬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피는 '은일자의 꽃'

다시 국화의 계절이다.

가을하면 국화이고 국화하면 가을이다.

요즘 국화는 개량종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와 꽃 모양과 색깔이 실로 천태만상이다. 갖가지 요란한 꽃모양과 온갖 현란한 색깔을 가진 개량종 국화들은 대개 화분에 심어져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모양의 개량종 국화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뜯어고친 미인 같아 보이거나 시골 선비가 격에 어울리지 않게 비단웃입고 거들먹거리는 꼴 같아서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국화는 들국화를 닮은, '촌티 나는' 재래종 국화다. 시인 서정주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번 젊음의 뒀안길에서 /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어'라고 읊었던 바로 그 국화다.

뭐니 해도 국화는 꽃들이 드문 계절에 혼자서 고집스레 묵묵히 꽃을 피워내기에 칭송받는 꽃이다. 그래서 국화를 '오상(傲霜)'이라고 부른다. 찬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기상으로 꽃을 피워내기에 붙은 이름이다.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다 보내고 /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는가 /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이정보)

옛 선비들은 국화의 이런 높은 지조와 고고한 기풍을 흠모 찬양하며 그 자세를 본받으려 했다.

국화는 또한 '은일자(隱逸者)의 꽃'으로 칭송 받아왔다. 가을 찬바람 불 때 외롭게 피어나는 모습에서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 숨어서 사는 은일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국화가 은일자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도연명의 유명한 시 한 구절에서다.

도연명은 그의 시 '飲酒 其5'에서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동편 울타리 밑에 핀 국화를 따다가 우두커니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 이라고 읊었다.

문일평은 <花下漫筆>에서 "이 시귀는 국화의 미(美)를 자연과 인생에게 아주 잘 조화시켜 표현한 은일시인의 천고절조(千古絶調)다. 직접적으로 국화를 읊지 않은 데서 도리어 일층 더 자연스런 정취가 이슬처럼 흐르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저 요염한 장미나 다알리아 같은 꽃을 사랑하는 서양인들이 이 동리국(東籬菊)의 명구(名句)가 주는 깊은 맛을 제대로 느끼고 맛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일평은 또 "도연명이 몹시 사랑했던 동리국(東籬菊)은 노란색(黃花)으로 국화의 본성이 서향을 좋아하므로 동쪽 울타리(東籬)에 심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시골로 이사 간 첫 해에 장에 가서 국화 모종을 몇 포기 사다가 마당에 심었다. 다행히도 그것들은 '촌티가 나는' 재래종 국화였다. 해마다 가을이면 담 옆에 핀 노란 국화를 보는 게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태풍 때미 때 바닷물이 우리집 담을 무너뜨리고 마당을 덮치면서 소금기에 약한 다른 꽃나무들과 함께 그 국화들이 다 시들어 죽고 말았다. 사진의 국화는 우리 동네 이웃집 뜰에 있는 것이다.

국화는 꽃도 좋으나 꽃봉오리와 잎사귀 역시 보고 즐길 만하다. 꽃봉오리는 꽃을 터뜨리기 직전까지 웅골차게 입을 앙다물고 있다. 그 모습에서 쉽게 속을 내보이지 않겠다는 어떤 단호한 결기를 엿볼 수 있다. 잎사귀는 잉카 문양(紋樣)을 닮았다. 반듯하고 단정한 잎사귀에서 만만찮은 품



내가 좋아하는, '촌티 나는' 재래종 국화. 이웃집 뜰에서 촬영했다.



웅골차게 입을 앙다물고 있는 듯한 꽃봉오리와 잉카 문양을 닮은 잎사귀도 보고 즐길 만 하다.

위와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꽃이라고 해서 꼭 꽃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화가 말해주고 있다.

<김치웅(19회)>

시산책

산등성이

고영민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 발단이 어찌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大小事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죄 없는 방문만 견어차고 나간다. 나는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랜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가는 칠혹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마을의 한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서겠노라 큰소리다. 나는 싸늘히 동돌리고 앉아 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잠으시라고 하니, 그냥 뒤라, 내가 열일곱에 시집와서 팔십 평생 네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소리치고는 저기 저 등성이를 넘

는 것을 못봤다. 어둠 속 한참을 쫓아 내달린다.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잔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기세가 천 리를 갈 듯 하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혼곤한 잠속, 순간 아버지가 견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 에이, 이 못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잠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 뜰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할망구, 뒤돌아 식식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천릿길을 내달린다.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물고 온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팔십 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고영민 시인 = 1968년 충남 서산출생, 중앙대학교 문창과 졸업
2002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악어> <공손한 손>



안락한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의 중심
김해의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 아이스퀘어

김해 부원역 복합단지 - I SQUARE

아이스퀘어



특급호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55세대), 아이스퀘어 풀, 힐인전, 시니어, 워트니스센터, 금융&오피스센터, 메디칼센터
모든 프리미엄을 한자리에서 누립니다 - 아이스퀘어

- ! 빌딩복합 시설과 복합단지 | 대형 빌딩복합 시설과 복합단지의 입점으로 아이스퀘어에서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이 가능합니다.
- ! 건강한 웰빙 문화공간 | 워트니스센터, 수영장 등의 각종 웰빙시설이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골라줍니다.
- ! 단지내 롯데마트 입점 | 아이스퀘어나 롯데마트의 입점을 통해 원스톱라이프의 여유로운 생활이 펼쳐집니다.
- ! 각종 금융편의시설 및 학원가 | 각종 금융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들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 ! 다양한 분야의 메디칼센터 | 각 분야의 전문 병/의원들이 함께 모여 종합병원 같은 사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1일 김해 부원역 복합단지 아이스퀘어 기공식 및 대우푸르지오 아파트(55세대) 모델하우스 오픈

분양문의 · 055) 329 - 8000

KODECO 크리제빌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박 명 진 (33회)

다시 보는 부산 ⑤ / 남포동

옛 기억 찾아 걷는 거리... 이제는 청소년들의 해방구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중3 때였는지, 고1 때였는지 분명치 않다. 어둠이 막 짙어지기 시작한 초저녁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던 우리 일행에게 어디선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치자면 창졸간에 기습을 당한 것이었다. 누가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르고 속절없이 테러를 당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맞았다.

다행히 저돌적인 테러범들의 불법 행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 '하나 둘 셋!' 했는지 한순간에 일제히 손을 떼더니 처음 달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동시에 달아났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만 망연 자실 지켜볼 뿐이었다.

1960년대 초 어느날 제일극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부산 남포동의 제일극장. 그 시대에는 부산극장과 나란히 부산 영화의 중심지를 지키며 시네마 키드들의 기습을 두근거리게 했던 곳이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던 때여서 도심이라 하더라도 좌판들에서 켜놓은 가스 불이 가로등을 대신하는 형편이었지만 극장 앞만은 환했다.

여배우 도금봉을 실물로 봤던 그 때

서대신동 산기슭의 촌놈들이 그날 거기에 갔던 것은 그러나 영화를 보러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대개 그렇듯이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자갈치에서 남포동을 거쳐 광복동, 국제시장을 어슬렁거리며 '바람을 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시절은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내 또래들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는 의식 못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방법이었다. 도심의 거리에는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이 있었다.

남포동의 옛 기억 중에 오래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글래머 여배우 도금봉을 본 것이었다. 화려한 치장이 달린 모자를 쓰고 굴곡이 강조된 몸매로 주변을 압도하며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땀과 입술에서 작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화려함을 더했다. 영화에서는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실물을 보고는 숨이 막혔다.

도금봉을 보았던 그 시절과 오늘의 남포동은 많은 것이 변했다. 그 시절 남포동 좁은 골목길은 밴드 연주가 요란한,

벳사람과 성인들을 위한 술집골목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술집들 대신에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로 거의 메워졌다. 이곳에 준비했던 극장들에도 변화가 컸다. 동아극장, 국도극장, 남포극장을 비롯해서 주변의 극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제일극장은 부산극장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아직 오랜 역사를 지켜오는 부산극장과 맞은편의 대영극장을 중심으로 남포동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중심 무대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와 함께 '비프광장'이라 불리는 부산극장 앞 남포동 사거리는 어느새 관광객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영화제 기간에는 배우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때가 아니라도 휴일이면 이곳에 사시사철 사람들이 넘친다.

'비프광장'엔 국적불명의 타로 점집들 준비

남포동은 행정적으로는 자갈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산 사람들에게 남포동은 남포동이고 자갈치는 자갈치이다. 지하철 1호선 남포동역 앞에서 시작되어 총무동 교차로 버스정거장에 이르는 800미터 남짓한 거리, 이곳이 남포동이다.

자갈치에는 중년과 노년의 출입이 압도적이지만 남포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젊은이들 중에도 특히 20대와 10대가 두드러진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중년 남녀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지금도 남포동 역에서 가까운 80미터 정도 거리에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다. 밥집도 전형적인 일식집이 보이고 삼점집도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단 거기를 지나면 완전히 '청소년 해방구'로 풍경이 바뀐다.

밥집도 술집도 옷가게도 서울 홍대 앞을 생각하게 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곳의 평균 연령이 더 낮다. 휴일 낮, 10대 소녀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거리를 누빈다. 휴대전화 가게나 기념품 가게는 아예 10대 전용처럼 치장을 해놓았다. 그러나 해방구라고 하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은 연출되지 않는다. 그저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진 찍고 웃고 재잘거리며 다닌다. '비프광장'의 찹쌀씨앗호떡이나 떡볶이, 어묵, 오징어구이로 군것질도 한다. 내가 제일극장 앞의 어두운 거리에서 얻어맞던 때와는 거리의 모양도 색깔도 소리도 완전히 다르다.

'비프광장'에서 부산극장 앞을 지나 총무동 방향으로만 타로 점집들이 즐지어 서 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 중반에는 남포동 가까운 용두산공원에 손금이나 관상, 사주를 봐주던 거리의 점쟁이들이 도시 곳곳에 심심찮게 있었다. 이제 그 같은 풍경은 부산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대신에 타로 점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대학가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아라비아에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이 외래종 점술이 판을 벌인다. 그러니까 남포동에 그것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포동 '배신' 하고 떠난 부산국제영화제에 섭섭 지난 10월 5일 저녁 남포동의 '비프광장'에서 제16회 부



휴일 낮의 남포동길. 폭 4미터 정도의 길은 10대들로 넘친다. 과거에는 중장년의 거리였으나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거리로 변했다



'비프광장'에 차려 놓은 먹거리 노점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 개 900원 하는 찹쌀씨앗호떡이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열렸다. 국내외 영화인들이 모습을 속속 드러내고 빈자리 없이 물려든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질렀다. 그런데 이 날의 전야제는 지난해까지 열렸던 열다섯 번의 전야제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 날의 행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남포동 고별식 같은 것이었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른날 해운대에 새로 지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을 했고, 이어서 아흐레 동안의 모든 행사를 해운대 안에서 진행했다. 말하자면 부산국제영화제는 15년 사귀어온 남포동을 배신했다. 부산 사람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포동 주민들, 특히 이곳의 영화관, 음식점, 상점과 연관된 사람들은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남포동과 별다른 인연이 없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배신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한다. 이 일로 지금까지 정들었던 남포동이 앞으로 쓸쓸한 곳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점점 덜 모이게 되고, 모여더라도 특별히 즐거울 일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내 이곳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활기없는 남포동을 나도 결국 떠나야 하나, 이 같은 걱정을 하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포동아, 남포동아!



편집실 메모

▶ '염쟁이 물리학교수' 박홍이 동문(17회)의 이야기(13면) 참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가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삶은 무엇이고 또 죽음은 무엇인지 등을 다시한번 성찰하게 해줍니다. 객원 편집위원인 이창기 시인이 박동문을 인터뷰 했습니다.

▶ 추영재 동문(12회)이 '그 때 그 시절이야기'를, 정형근 동문(18회)이 '은사열전'을 각각 투고해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이 만드는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김형운 동문(18회)이 연재물 '다시 보는 부산' (19편)을 쓰기 위해 취재차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힘든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THE BMW X6 M AND BMW X5 M.

UNCOMPROMISINGLY DIFFERENT.

BMW M. 

BMW 동성모터스 해운대지점

_Sales Consultant **김 태 련**

_Mobile 010.8520.5482

※경남고등학교 55회

